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259호 | 2015년 11월

www.snuaa.org

news@snuaa.org

SNU Alumni Association USA |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 Tel: 484-344-5500 Fax: 484-342-0222 | 발행인: 손재욱 편집인: 김정현



홈커밍데이에 모교를 방문한 미주동문들과 모교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관련기사 2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장에 대한민국 유엔대표부 오준(불문 74) 대사가 선출됐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사무국, 국제사법재판소와 함께 유엔의 5대 기구 중 하나로 만들어졌으며, 한국인이 의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준 동문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름을 기억하는 외교관이다. 작년 말 안보리서 한 북한인권 관련 연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며 2030 세대로부터 큰 울림과 열광적 성원을 이끌어낸 오준 동문은 아마추어 화가이면서, 유엔 최초의 앰버서더 록밴드 'UN Rocks'의 드러머이기도 한 오 동문을 서울대총동창회가 이메일로 인터뷰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최근 남북한 사태에 대해 유엔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 제가 다른 나라 대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북한의 무력 도발은 과거에도 자주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북한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심리전 방송에 대해서는 같은 심리전으로 대응하면 될 텐데 왜 무력 대응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포부 등을 들려주세요.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유엔의 3대 실질기관 중의 하나이며, 경제, 사회와 관련된 모든 이슈를 다루니까, 총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폭넓은 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제가 취

평등(Inequality)’ 문제에 관한 특별회의를 내년 초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는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치관을 들려주세요.

“후배들과 이야기를 할 때, 누구나 어느 시점에서 스스로의 고뇌를 거쳐 가치

게 되어서 끈질긴(?)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SNS에서 ‘2030’세대 열광 이끌어낸 ‘그 연설’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들은 그냥 아무나(Anybodies)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 수백만명의 가족이 북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이제는 헤어짐의 고통을 냉엄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겨우 수백 km 거리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한) 유엔 북한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고,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같은 비극을 겪은 듯 눈물 흘립니다. 안보리를 떠나며, 우리는 북한에 있는 무고한 형제자매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부디 훗날 우리가 오늘을 되돌아볼 때 북한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그들을 위해 말합니다.”

이 연설은 동영상(<https://www.youtube.com/embed/pQEy9IBehfA>)을 통해 볼 수 있다.

한국인 첫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에 선출

임연설을 통해 제시한 4가지 중점과제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사회이사회가 현실 세계에 대한 ‘적실성(Relevance)’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경사리의 활동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고, 실제로 전 세계인의 삶과 현실에 있어서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다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엔의 토의가 현실적이기 보다는 탁상공론에 가깝다는 비난을 받아 온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불



▲오준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관을 정립하는 것(Soul Searching)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중략) 저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은 굳이 이야기 하자면 실존주의적 사고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실력이 대단하신데, 드럼 연주 실력도 수준급이라고 들었습니다.

“누구나 취미가 한두 개 있듯이 저의 경우에는 그릿과 드럼 연주인데, 좀 과장되게 알려진 것 같아 쑥스럽군요. 드럼은 대학시절 밴드에서 연주한 후에는 다시 할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엔에서 대사들의 밴드(명칭 UNRocks)에서 연주를 하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글은 본 회보가 Copy Right를 갖습니다.

1-2	홈커밍데이/오준 대사 유엔 경사리 의장에	18	수필:이태상/동문 사느이야기:오광동
3	사설:역사, 무엇을.../논설:송호근	19	시번역:김지영/경제칼럼:최운화
4-6	모교소식/미주뉴스/논설:최용완/게시판	20	수필가 등단:강창욱/역사칼럼:전무식
7-11	지부소식:휴스턴/RM/NE/남가주/NY/PA/샌디에고		책소개:김세윤
12	영화:겨울나비/프린스턴 한문연 강좌:민병갑	21	공트:이석호
13	건강칼럼:조종행/수필:박평일	22	동문 사느이야기:마라토너 박명근
14	심리학칼럼:곽금주/시:서윤석/퀴즈결과	23	수필:허유선/영화이야기:임연철
15	경제칼럼:김창수/책소개:The Giving Tree	24	여행기:이강홍/김영
16-18	My Story & Your History	25-32	광고/부고/미주 동문 업소록/편집후기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95

개학 120주년 | 통합개교 69주년

제36차

Homecoming Day

서울대에서는 매년 10월 15일 개교기념일 행사와 홈커밍데이 행사를 한다. 급년 개교기념일 행사는 하루 전인 14일에 중강당에서 있었으며, 홈커밍데이 행사는 18일 일요일에 있었다.

개교기념일 행사
올해에는 개학 120주년, 통합개교 69주년을 맞이하여 다시한번 서울대의 세계 대학에서의 위치를 점검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낙인 총장은 밝은 영혼이 깃든 ‘선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참된 지식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고, 서울대의 이름에 걸맞는 내실을 다지자고 말했다.

조완규 전총장은 축하사에서 서울대가 국내외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범인화에 따른 자율성을 바탕으로 창의력 있는 교육 방법을 끈기있게 추구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특별히 동문들의 모교 발전을 위한 절대적인 기여를 촉구했다.

서정화 총동창회장은 2015년에 총 840명에게 30억 원의 장학금 지급, 선후배 결연사업을 통해 통합적 멘토링 지원사업, 서울대학교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동창회의 사업을 설명했다.

상장 수여식 - 40년, 30년, 20년 장기근속 공로 표창을 수여했으며 오예준(국사학과), 박지슬(건축공학과) 등5명의 학생들에게 봉사상을 수여했다.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교육봉사, 소년원에서 피아노 렉슨, 아픈 아이들과 놀아주기 등의 지역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은 김영자(문리대 62), 손인근(법대 51), 이송희(간호대 47), 주중광(약대 60), 한인규(농대 52)에게 전달되었다. 그 중 주중광 미주 동문은 조지아 대학교의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후학 양성과 신약개발에 헌신하고 있는 세계적인 약학자이다.

홈커밍데이
홈커밍데이에 15명의 동문이 미주에서 참석했다.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손재욱회장, 윤상래 차기 회장과 가족들, 이성숙 재무국장, 조보완(법대 53), 고일석(보건대 69), 유재섭(공대 65), 주중광(약대 60), 하지영(문리대 66), 김동희(공대 66), 이영우(문리대 66), 이진구 9대회장(농대 62), 조정현(수의대 58), 최경선(농대 65)과 가족 한명이 참석하여 모교의 가을하늘을 만끽했다. 필라델피아, 시카고 지부에서 세명씩, 뉴욕, 아틀란타, 뉴잉글랜드 지부에서 두명씩, 북가주 지부에서 한명의 동문이 참석한 것이다.

총장실 방문이야기
등록 후에 총장실에서 김종서 부총장과 담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강신호 동아제약회장(의대 52년 졸업)이 예년과 다름없이 참석하여 60년대 당시 생활과에 시달리던 국민을 위하여 박카스를 개발한 이후 200여가지 항생제와 치매약 등 국제제휴를 통한 경험담을 나누었다.

서울대의 순위가 국가적인 우위순위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윤상래(수의대 62) 차기회장의 질문에 김종서 부총장은 영어권 문화가 아니어서 교수들의 연구 교류나 발표등이 효과적이지 못함이 이유가 아닌가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서울대는 현 정규교수 2000명 중 외국인 교수가 100명 정도 있는데 앞으로의 10% 정도의 외국인 교수를 확보하고 대학생들의 'Study Abroad Program'을 통해 Global Community와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홈커밍데이 행사이야기
푸짐한 점심식사 후 이어진 이번 행사는 예년과 다르게 작년에 2000여명이 편리하게 앉을 수 있는 스타디움식 돌출계로 완공한 풍산마당에서 이루어졌다. 동문

[사설]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에 대한 여론이 국내외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현장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나 역사를 학문으로 하는 대학교수들까지 이구동성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여론에 아랑곳 없이 국정화를 밀어부치고 있다. 나아가서는 정부방점으로 결정되는 국정화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국회에서까지,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열을 올리고 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 걸었다가 하루만에 철거한 여당의 모습이나, 4분5열 땅에 떨어진 대중의 인기를 만회할 절호의 찬스라고 버르는 야당의 모습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왜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아니, 우리는 왜 후세에게 한국역사를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 보게 된다. 보다 나은 미래를 갖기 위해서가 아닐까? 한 사람이 종신 집권을 시도하던 자유당시절이나 유신시대나 군부시대가 우리의 역사에서 부끄러운 일이었다면, 그 부끄러움을 숨기는 대신 가르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마을운동이 한국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다면 그것 또한 배우고 더 나은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장롱 속의 금불이를 내 놓으며 온 국민이 떨쳐나서 IMF 위기를 극복하던 노력이 고쳐서라도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면, 우리의 후세에게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 라는 걸 가르쳐야 한다. 갈수록 글로벌화되는 미래의 세상에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평화와 화합으로 이끌고 창조해 나가는 한민족의 후손들을 길러내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세상에서, 무엇을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지 않는 세상이다. SNS를 통해 순식간에 소식이나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역사도 마찬가지다. 90%의(소위 좌경화되었다는) 역사학자들을 무시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학자들에, 그것도 명단도 떼땀이 내 놓지 못하는 정부가 선정한 한국사 편찬위원들이 어떻게 2/3가 넘는 반대를 포함한 온 국민이 공감할

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민주개혁은 선거구 갯수나 따지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당파싸움이 아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굴복해 흡수당하는 통일이 한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평화적 통일이 아니다. 국민을 종북아니면 수구꼴통으로 밖에 분류하지 않는 이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어떻게 타파해야 하는가?

첫째 모두가 동의하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국가의 리더는 국민이 화합하

11월 3일 교육부는 '한국사 국정교과서화' 발표 후 지난 20여일의 고시기간 동안 찬성이 152,805명(32%), 반대가 321,075명(68%)에 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찬성 의견만 수용하고 반대의 견은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국정 교과서 편찬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수 있는 공정하고 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정부가 편찬위원들을 일방적으로 임명할 게 아니라 역사학회든가 역사교육학회가 역사학자들을 대표하는 기구라면 이런 학회에서 스스로 필진을 추천하고 조율할 수는 없는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우리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의 사명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이며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정의·인도와 동포에

이 정치권의 공방과 학계의 대립은 실제보다는 훨씬 과장됐다. 그러나 아니라고 말하기도 힘들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시장을 장악한 7종의 한국사 교과서는 '부실하고 편향적'임에 틀림없다. 조선은 못난 나라, 근대 개혁은 실패했고, 일제 강점기엔 지주·상공인·지도층이 대부분 친일파였다. 안중근의 폐거는 설명이 부족하고 의병운동은 조그마치 있으면 사회주의, 노동·농민운동이 민족 정통성의 보루인 듯 보인다. 현대사에선 시각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진다. 절박한 심정으로 보수진영이 개발한 교과사 교과서는 '식민치하에서도 근대 발전이 이뤄졌다'는 식민주의 관점에 입각해 있는데, 민중 진영의 포화를 맞고 죽었다.

역사학자들의 성향은 대체로 보수적이다. 그런데 왜 민중투쟁에 비중을 실은 교과서가 대중일까? 약 2할 정도인 진보학자들이 세 학장을 위해 선택한 게 사회운동으로서 교과서 쓰기다. 청소년 교육 시장을 파고 들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일종의 사명감의 발로였다. 이제는 중견 학자가 된 386세대 사학자들의 활약이 주효했는데 지지부진한 민주화에 대한 불안심리, 지배정권의 허술한 정당성을 철회하려는 학문적 실천이었다. 역사학과 사회과학에서 민중사관의 단결과 한계는 이미 밝혀졌고 이론적 설득력도 벌써 쇠퇴했음에도 말이다.

더 중대한 문제는 부실(不實)이다. 통합교과서란 2천년 역사를 종합적·객관적으로 다룬 '좋은 역사책'을 말한다. 누군들 그걸 원치 않으랴만 역사학자에게 이 기준은 천형이다. 영역별·시대별로 쪼개진 전공 주제를 평생 세공(細工)하는 학문이 역사학이다. 식민지기조차 전공이 수십 개고, 사관과 신조가 다른 판에 통사(通

고 동의하는 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의 사명이 평화적 통일이라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언제가는 남북의 대표가, 각 계층을 대표하는 세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아 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자리에서 한쪽이 상대의 체제나 사고방식, 생활방식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나와, 그 체제의 장, 단점을 이야기하는데, 한 쪽은 상대에 대해 아는 게 없이, 또는 알더라도,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뜬금없는 소리만 하게 되는 년센스는 없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장님으

史)는 불가하다. 동료교수 논문을 읽을 수는 있지만 쓰려면 욕 보기가. 두어 명이 집필하면 부실이 된다. 특급 학자는 이론을 만들고 일류 학자는 사료에 파묻힌다. 학계에 길이 남을 특급 저서가 목표인 이들에게 교과서는 안중에도 없다. 속사정이 이러한데, 집필진이 원치 않으면 명단을 밝히지 않는다? 열골 없는 교과서를 누가 신뢰할까. '집필 참여가 끝' 어용'으로 치부될 상황에서 의기충전한 일류 학자를 30~40여 명 초빙할 수 있을까? 혹시 자원방대해도 국가가 은근히 제한하는 '올바른 역사' 기준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부실·편향 교과서는 차제에 수정돼야 한다. 사람을 불러야 할 이유다. 그것도 여러 진영에서 특급·일류 학자를 초빙해 깊이와 균형을 되살려야 한다. 그런데 국정이라는 정치화된 프레임이 걸림돌이다. 성취와 좌절, 오욕과 영광이 응어리진 역사적 경험지층을 가감 없이 보여줄 때 객관적 미래 지평이 열린다. 그래도 무리수를 두었다면 '검인정 같은 국정'을 생각해볼 직하다. 첫째, 시한을 2년 이상으로 늘리고 적어도 2권 이상을 기획하는 방식이 있다. 기존 진보 교과서와 경쟁시켜 시민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살리면 좋다. 둘째, 제별 특급 학자들을 불러라. 각 분야에 누구나 존경하는 학자들이 있다. 열빛 김용섭, 한영우, 조광, 송재소, 조동걸, 이태진, 손정목, 노태돈, 김용구, 신용하, 임택택 같은 원로 학자들이 생각나고 중립적·객관적 사관을 견지한 중견 학자들이 다수 있다. 이게 안 되면 집필진을 밝힌 국사편찬위원회 간행본을 경쟁 시장에 하나 추가할 수 있다. 선진국 교과서는 대학교재 수준이다. 아무튼 부실 교과서가 부실 역사교육을 만드는 이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송호근(문리대 75) 서울대 사회학 교수, 출처: 중앙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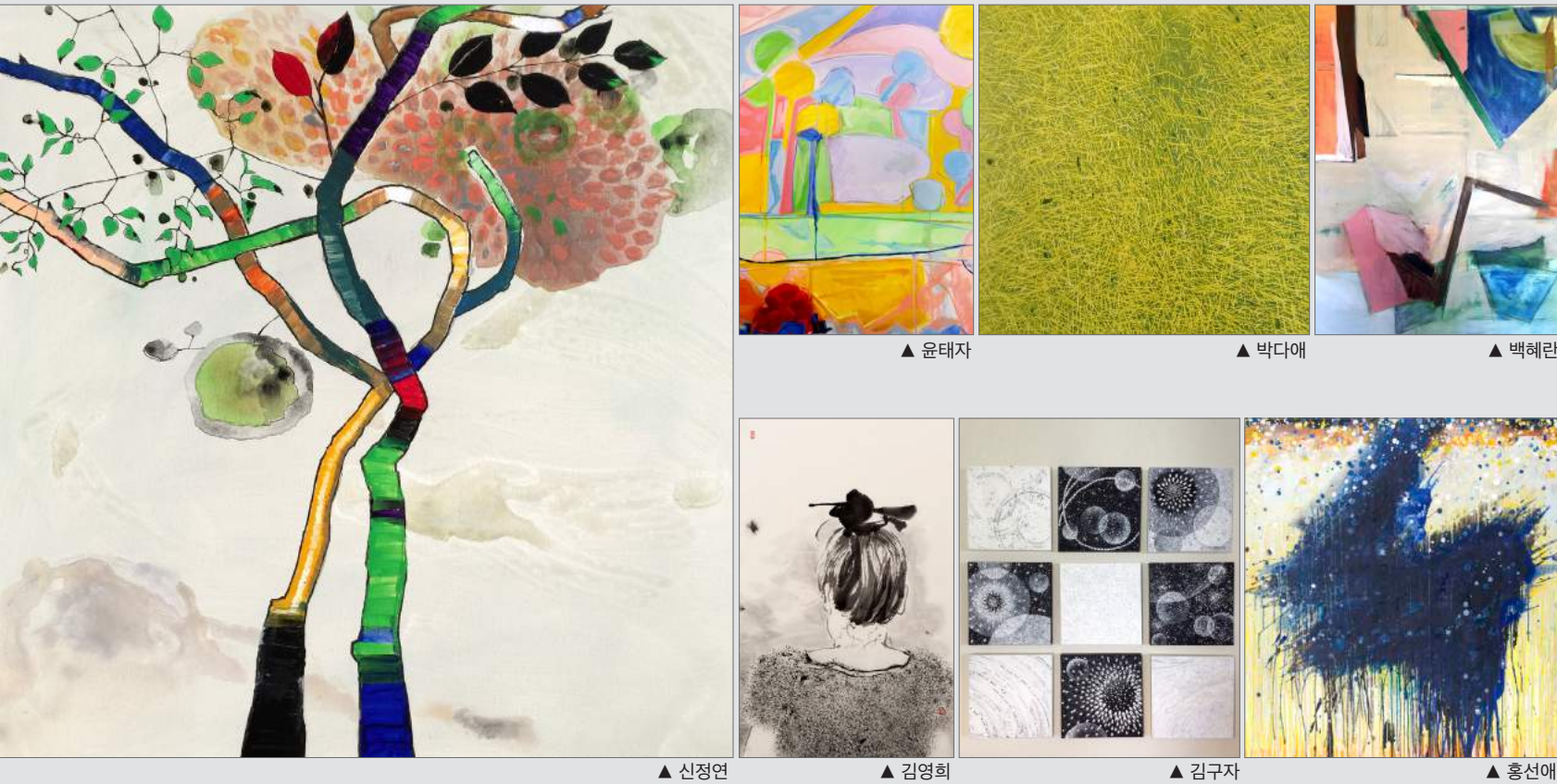
남가주 동창회 : 미래 동문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남가주 동창회의 제13회 동문전이 10월 17일 부터 30일 까지 Los Angeles Wilshire가에 위치한 리앤리 갤러리에서 열렸다.

박영국 미대 회장은, 올해로 제 13회를 맞이하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남가주 동문전은 이민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동문 작가들이 모여 서로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현실과 공존하는 창작 세계를 소개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는데, 많은 관람자들이 찾아와 작품과의 공감을 통해 일상에 큰 활력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10월 17일 오후 5시~8시에 오프닝

리셉션이 있었고, 많은 동문들과 친지 등의 관람객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출품한 동문들은 김순진(59학번), 성수환(59학번), 김화자(60학번), 손남수(60학번), 신동인(60학번), 김구자(61학번), 신정연(61학번), 심영자(61학번), 오성주(61학번), 윤태자(62학번), 임그레이스(61학번), 최열자(62학번), 홍선애(62학번), 김영희(65학번), 박영국(66학번), 김윤진(67학번), 백혜란(70학번), 김경애(83학번), 한석란(70학번), 박다애(73학번), 박혜숙(74학번), 박영구(84학번), 강인선(85학번) 등 23명의 동문들인데, 이들은 LA 등 미전역과 한국 등지에서 창작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동문들이다. 59학번에서 85학번에 이르기까지 27년의 격차를 뛰어 넘는 선후배 동문들은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 보이고 있다. <글: 홍선례(음대 70) 편집위원>



남가주 동창회 : 농생대 동창회 정기야유회



남가주 농생대 동창회(회장 정병혁(농대 70))는 10월 17일 Buena Park 소재 Clark Regional Park에서 30여명의 동문과 가족이 모인 가운데 2015년 정기야유회를 열었다.

단골 행사인 Line Dance와 제기차기, Badminton을 생략하고 소품별로 나누어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다. 모두가 함께 모여 CTS(기독교) TV에 방영되었던 “무속자 사목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충남 동문(61, 축) 부부로부터 방송에 얽힌 숨은 이야기를 들었으며, TV를 시청한 동문들은 찬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충남 동문은 이 자리를 빌어, 물심 양면으로 도움을 준 동문들(지종근, 박진득, 염동태)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또한 9월 초 Mammoth Lake 가족 Camp에 참석했던 동문들은 즐거웠던 추억의 이모저모를 전하며, 향후 더 많은 동문들이 총동창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기로 했다.

Sand Pebbles 초청 등 2016년도 신년회 행사에 대하여 협의하고 참가자들에게 분국 농생대 동창회에서 보내는 동창회보를 배부한 후 야유회를 마쳤다.

<정병혁(농대 70), 562-505-1333>

남가주 동창회 : 음대 동문 정기연주회 / IM Foundation 방문

지난 9월 20일 다운타운에 위치한 Zipper Concert Hall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남가주 동문 정기연주회가 남가주 총동창회 협찬으로 개최되었다. 네팔 지진피해자 후원을 위한 이 연주회에서 450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음대 동문들의 연주에 매료되어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냈다.

첫 번 순서는 한국전통 예술협회 회장인 김동석(64, 전 UCLA 교수, 전 총동창회장) 동문의 한국 전통가곡 중에서 “남창가곡 중 언락과 편락”이 가야금, 거문고, 대금, 해금, 피리, 장고 등의 반주로 연주 되었다. 가곡은 3행으로 된 우리 고유의 시조시를 관현의 기악반주

F. Chopin의 “Scherzo No. 4 in E major Op. 54”를 연주한 박초현(94) 동문의 Piano Solo. 스케르조는 베토벤이 만들어 낸 형식으로 해학미를 지닌 경쾌한 곡조이다. 그러나 쇼팽의 이 곡은 불타는 정열과 힘찬 역동감이 듣는 이의 마음을 생동케 한다. 박초현 동문의 섬세하고 박력 있는 터치는 맑은 봄날의 햇살이 비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했다.

동문합창단 찬조 출연, J. Arcadelt의 “Il bianco e dolce cigno”와 J. Bock의 “Sunrise, sunset”, 그리고 황철의 편곡의 “새 몽금포 타령” 등이었다. 28명의 단원들은 지휘자 장진영 동문의 능숙한 지휘 아래 한 폭

의 강물”과 S. Cardillo의 “Core n’grato”였는데, 김일 두 동문은 폭 넓은 음악의 우렁차고 맑은 음색으로 청중들을 압도하였다.

김원선(04) 동문의 첼로 솔로, R. Schumann의 “Adagio & Allegro”였다. 이 곡은 첼로 특유의 떨림이나 유연한 흐름을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살려 내는 곡이다. 피아노와 첼로는 서로 선율을 주고 받으면서 일체가 되어 나가는데, 피아노에는 또 화음에 의한 색채적 변화의 역할이 주어진다. 김원선 동문의 첼로와 제갈소망 동문의 피아노, 이 두 동문의 혼신을 다한 연주는 강렬하고 섬세하며 심줄 같은 탄력이 끊이지 이



에 맞추어 노래하는 곡을 말하는데, 일명 “만년장환지곡(萬年長歡之曲)”이라고도 하며, 1969년에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가곡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특히 거문고와 대금의 반주가 돋보였다.

J. Rutter의 “Suite Antique 1. Prelude, 2. Ostinato, 3. Aria, 4. Waltz, 5. Chanson, 6. Rondeau”를 최혜성(99) 동문이 연주했다. 최혜성 동문은 플룻 연주를 통해 ‘귀중한 골동품’을 의미하는 ‘Antique’를 과거에서 현재로 영속되는 음악에 내포된 휴머니즘과 아름다움으로 표현했다. 또한 따뜻한 감성을 불어 넣으며, 화사한 음색 속에서 순수함을 표현하여 환호를 받았다.

Bass 장진영(88) 동문의 F. P. Tosti의 “Non t’amo piu”(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으리)는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루어 멜로디의 아름다움이나 가사를 호소력 짙게 표현한 곡인데, 장진영 동문의 진한 감정 표현은 더한 감동을 받게 했다. 그리고 P. I. Tchaikovsky의 “None but the lonely heart”를 노래하였다.

네팔 지진피해자 후원을 위한 음대 동문 정기연주회

소리로 화음을 만들며 노래했다. Lillian Adler (1937-1997)가 “합창이란 기쁨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노래하는 단원들 모두의 얼굴이 기쁨에 가득 찬 행복한 표정이었다.

김미향(73) 동문과 딸 에스더 길 모녀가 J. Brahms의 “Hungarian Dances No. 1, 7, 17, 21”을 피아노 듀엣으로 연주하였다. 이 형가리 무곡은 브람스의 유명한 작품 중의 하나이며, 헝가리 집시의 영향을 받아 자유분방한 리듬과 우수 어린 집시 선율, 그리고 즉흥적 성격을 지닌 멜로디가 특징이다. 연주된 또 한 곡은 A. Berio의 “Maria Isabella”인데, 다정하게 나란히 앉아 피아노를 치는 모녀의 모습은 무척 정겨워 보였고, 그들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채를 보여 주었다.

김일두(98) 동문의 Tenor Solo, 이수인의 “내 마음

어저 음악을 듣는 동안 계속 긴장 속에서 놓여 날 수 없었다.

다음은 G. Bizet의 오페라 “진주 조개잡이” 중에서 “Au fond du temple saint”(신성한 사원에서)와 김희갑의 “항수”가 김일두(98) 동문과 장진영(88) 동문의 이중창으로 연주되었다. 우아하고 청아한 두 동문의 음색이 어우러져 지퍼 홀을 가득 채웠고 청중들은 힘찬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다음 서영란(75) 음대회장의 음악회가 있기까지 수고하신 임원들과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는 인사말이 있었고, 끝으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전 총동창회장 권길상 작곡 “몽금 달”을 연주자와 관객들이 함께 제창하며 음악회는 막을 내렸다.

해마다 그렇듯이 올해도 음대 정기연주회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 넘는 훌륭한 음악회였다. 결실의 계절 가을의 어느 날, 음악이 우리에게 안겨 주는 풍요를 마음에 가득 안고 돌아 왔다.

<글, 사진: 홍선례(음대 70) 편집위원>



IM Foundation 추석 나들이

동문 열 분이 9월 26일 토요일 추석 연휴를 맞아 1박2일로 IM Foundation 재단을 방문했다. 이 재단을 방문한 이유는 서울대 동문들이 이 장소를 많이 애용해서 다민족 자녀들의 꿈을 이루어주자는 이 재단기금 모금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다.

학창시절에 많이 듣고 즐겼던 Pop song, Country music 을 들으며 가니 2시간 정도의 운전도 금방이다. Golf club house 식당의 Steak가 유명하다고 모두 시식을 해보았다. Medium-done으로 나온 고기는 시골인심이 후한지 2인분 정도의 큰 사이즈로 향이 균침을 뜯게 했다. 그윽한 분위기의 와인과 곁들인 저녁 그리고 Golf장

의 고즈넉한 정경이 그림 속의 한 장면, 예쁜 추억으로 남겨진다. 창밖의 추석달은 붉고 둥그렇다. 추석은 그 자체 단어만으로도 풍성함을 준다.

우리도 실내 강강수월래를 하듯 둥그렇게 둘러 앉았다. IM Foundation의 저녁은 갖가지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한국조 뽀내기에도 좋긴만 동문들은 마음편한 1박2일의 여행에 마음이 푸근해져 둘러 앉아 이야기하는 것을 더 즐겨한다. 내일은 새벽부터 골프를 쳐야 하는 일정인데도 내일은 내일, 오늘은 오물로 즐기며 시간가는 줄 모른다. 그 웃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한국에 온 것같은 기분으로 마냥 어린아이들의 놀이터에서인양, 세상 일을 잊게 한다.

아침 6시 기상 7시에 팬케익 하우스에 첫 손님으로 도착했다. Country풍의 통통한 아가씨가 친절하게 맞아준다. 아

침이라 날씨도 골프하기에 적당하고 골프 Course 도 완만하고 잔디도 벨벳같이 부드럽고 아주 잘 가꾸어져 있다. 쪽쪽 뻗어가는 3번의 Shot은 후련함과 통쾌감으로 Nice shot! 구령의 반주와 함께 그야말로 Green Field의 출사위이다. 끝에 집중력을 가하려 내기를 했다. 역시 서울대생은 자기 싫어하는 내면의 강함이 있다.

제 1 Group은 임낙균(약대 64), 강신용(사대 73), 백옥자(음대 71)으로 연료 많은 임낙균 회장이 당연 우승했는데 Chapter 7을 빌려 만세로 탐강했다. 제 2 Group은 서치원(공대 69), 임항균(사대 73), 노순철(사대 80), 윤재호(상대 76)으로 당연 노순철 사대 체육과 교수가 우승했다. 1박2일의 짧은 여행이 이렇게 길고 재미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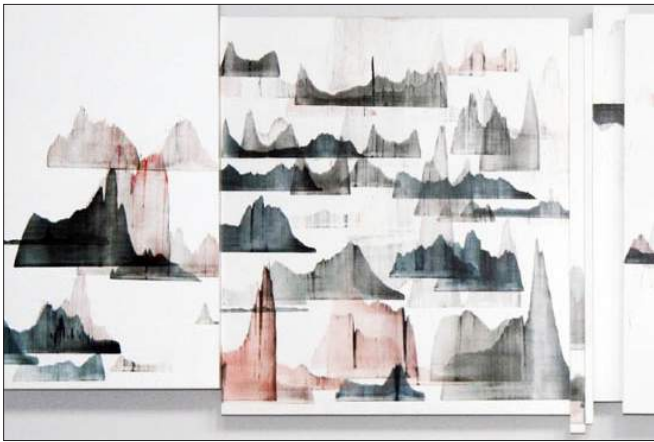
<글: 백옥자(음대 71) 조직국장>

뉴욕 동창회 : 김미경 개인전 / 이정화 수상 / 한테라 연주회 / 추계골프대회

김미경 개인전 “Interplay” 마음의 풍경

김미경(미대 75) 동문의 개인전 “Interplay”가 뉴저지주 티넥에 위치한 나비박물관내 나비뮤지움오브디아트에서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열렸다.

김미경 동문은 모교 졸업 후, 도미하여 뉴욕 프랫대학원을 거쳐 한국과 뉴욕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 브루클린 뮤지엄, 브루스 뮤지엄, 블럼 헬먼 웨어하우스, 아트인 제네럴, 아र्ट온더비치, 아트 오미등과 멕시코의 현대미술관, 한국 과 천현대미술관과 선재 현대미술관 등지에서 10여번의 개인전과 50여 차례의 그룹전을 개최하며, 이탈리아와 멕시코를 비롯해 뉴욕 등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또한, 뉴욕 아트재단(NYFA)과 한국 송은재단에서 펠로우십을 받은바 있고, 김 동문의 작품은 아트아시아퍼시픽, 스페이스 뉴욕 매거진, 뉴욕타임즈 등의 여러 매체에서 다뤄졌으며, 과천현대미술관등 다양한 미술관과 갤러리, 그리고 최근에는 크레너트아트뮤지움과 얼마나 샴페인대학에서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그 동안 작업해 온 마음풍경의 벽 설치작업의 연작을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타이틀은 ‘Interplay’로 그동안 작업해온 ‘마음풍경’의 작품들로, 그의 작품은 탐과 제단을 쌓는 것에서 처음 착안하였고, 나무 위에 모눈을 실크스크린으로 찍은 후 Putty Knife에 합성수지와 염료를 사용하고, 다시잘라 재구성하는 작품들이다.

작가는 공기중에서 빠르게 마르는 합성수지의 특성으로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시간속에서 ‘Controlled Accident’가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과정과 잘라 붙이는 과정을 무작위와 작위와의 계속적인 긴장감을 보여주는 작업을 선보였다. 수많은 이미지들이 반복적 쌓임은 마치 매순간 우리 마음에 스쳐가는 만상, 또는 순식간에 그려지는 동양화에서 볼 수 있는 이상화된 자연과 흡사하다. 작가는 무작위와 작위의 작업과정 속에서 우연성과 필연성, 의도(Intention)와 영감(Inspiration)의 경계에 대한 의문을 ‘제한된 무제한의 방법’을 통해 제시한다. <김원영 편집위원>



뉴욕지역 동창회(회장 민준기)가 주최한 2015년 추계골프대회가 지난 10월 10일 뉴저지 주에 있는 Em-erson Golf Club 에서 40여명의 동문과 배우자 및 친

지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와 쾌적한 자연 속에서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피아니스트 이정화 Global Music Awards 금상 수상

사우스 일리노이대학의 피아니스트 이정화(음대 88) 교수가 Global Music Awards (<http://www.globalmusicawards.com/>)로부터 솔로 피아노 CD Blue13(Complete Piano Works of Frank Stemper, released on April 1, 2015 by Albany Records)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이정화 동문은 선화예중고를 졸업하고 서울 음대 기악과 피아노전공으로 학·석·사 취득 그리고 미국 이스트만 음대에서 피아노 연주 및 문헌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스트만 음대에서는 박사학위 외에도 솔로 연주자 자격증과 (Performer's Certificate) 우수 반주자 상 (Excellence in Accompanying Award), 그 외에 리버라지 장학금과 막스 란도우 장학금을 받았으며, 소년한국일보 금상, 월간음악 콩쿨 대상, 서울대 대학원 지휘전공생 졸업연주를 위한 협주곡 경연에서 우승했고, 오케스트라와 연주, 그 외 14개국에서 독주와 실내악 연주를 하였고, 지속해서 활발히 연주 활동을 해오고 있다.

오를라호마 주립대학과 캔사스의 포트 헤이즈 주립대학을 거쳐, 현재 남일리노이 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인 이 동문은 오는 11월 초에는 브라질에서 열리는 현대음악축제에 초

청받아 생존한 한국 작곡가들의 작품들로 독주회를 할 것이고, 2016년 3월에는 스승이셨던 고 성두영 선생님의 작품을 포함한 한국 작곡가들의 작품들로 아시아 순회연주가 계획되어 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http://cola.siu.edu/music/faculty-staff/faculty/by-alpha/lee.php>, <https://www.youtube.com/watch?v=LFszhz236s8>



한테라 가야금, 카네기홀 데뷔 성황리에..

9월 29일 한테라(음대00) 동문의 뉴욕 카네기홀 가야금 데뷔가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한테라 동문은 6살에 가야금에 입문, ‘천재 소녀’라고 불릴 정도로 그 재질을 인정받아 왔고, 가야금 연주자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록펠라 재단의 ‘Individual Artist’로 선정되어 뉴욕에서 활약한 바 있으며, 불란서 파리, 중국의 북경, 일본 등에서도 활동을 해오고 있다. 조수민씨의 장구반주가 곁들인 이날의 연주를 위해 열은 하늘색 저고리와 분홍색 치마의 한테라 양의 손가락을 통해 울려나오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선율은 268석의 Carnegie Weill Recital Hall을 Sold-Out 으로 가득 채운 청중의 가슴을 시종일관 사로 잡았다.



▲ 카네기홀에서 연주하는 한테라양



▲ 왼쪽부터: 이정수(공대 71) 동문, 장구 반주 조수민, 한테라, 민준기(공대 69) 뉴욕 동창회장, 이진구(농대 60) 전 미주 총 동창회장

추계골프대회 개최

김영만(상대 59) 동문이 메달리스트와 장타상을 차지하였고, 남자 1등 김정필(공대 71), 남자 2등 이우인(상대 58), 남자 3등 손경택(농대 57), 남자 근점상 정도현(공대 57), 여자 1등 Mrs. 최한용, 여자 2등 Mrs. 김도명, 여자 3등Mrs. 송용길, 여자 근점상은 고예자(상대 58) 동문이 차지했다. 이날 메달리스트를 차지한 김영만(상대 59) 동문은 관선석 (공대 61) 동문이 기증한 \$500상당의 고급 반지를 부상으로 받았다.

저녁식사와 시상식은 골프장 클럽 하우스 레스토랑에서있었다. 잘 준비된 각종 한식과 맥주를 즐기며,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뒤로 하며 2015년 송년회에서 다시만날 것을 기약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원영 편집위원>

필라델피아 동창회 : 가을 골프모임 / 필라음악인협회 정기음악회



가을 골프모임 Champion trophy는 83타를 친 류용진 동문(상대 59)이, 2등은 민홍식 동문(수의대 60)이, 3등은 이관림 동문(공대 67)이 차지했고, 근점상은 전무식 동문(수의대 61)이, 장타상은 한중희 동문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부터 Defending Champion이신 제갈은 동문(문리대 59)의 수고로 제작된 순회트로피에 매 대회마다 챔피언의 이름이 계속 새겨지게 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공대 47학번이신 서재진 동문(2013년 대회 장타상을 수상)께서 참가하여 노력장을 과시하시고 또 \$300 기부도 하셨다. 한가지 아쉬웠던 것은 여성골퍼들이 부상으로 참석을 못했는데 모두 빨리 완쾌하셔서 다음 춘계시합때 뽀뽀를 바란다고 했다. <글: 한중희, 사진: 전방남>

샌디에고 동창회 : 걷기대회



서울대 샌디에고 동문 여러분, 후배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지만 도움이 되고자, 지난 10/3(토), Mission Bay 에서 예정대로 장학기금 마련 동문 걷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장학금 모금에 성원해 주신 여러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걷기대회: 박종진(문리대55)/원호정, 남장우(사대56), 박윤정(미대62), 전원일(의대77)/전원숙, 심상철(공대81)/심미리, 김주성(농대83)/진승희, 김기현, 최홍수(자연대87), 이진의(자연대92), 한진주(자연대99), 성혜승(사회대99), 김진우(자연대03), 양나래(농대08)

걷기대회에서 장학금 내주신 동문: 박종진(문리대55), 남장우(사대56), 박윤정(미대62), 전원일(의대77), 서정용(공대81), 김주성(농대83)

이미 장학금을 보내 주신 동문: 이용길(의대56), 서승열(공대59), 이문상(공대62), 김명호(의대68), 박조현(음대94) <김주성 회장>



필라음악인협회 정기음악회

심희진(음대 90), 김미순(음대 86), 유미영(음대 87), 채주원(음대 09) 등의 음대 동문들이 참가한 필라음악(회장 고수지) 정기음악회가 광복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의 ‘조국사랑 감사음악회’란 주제로 10월 10일 안디옥교회 새로 단장한 본당에서 열렸다.

400여명의 청중이 가득 채운 음악회는 전문 음악인들의 무대인 만큼 아름다운 목소리와 전문적인 챔버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청중들로 하여금 떠나온 조국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만끽하게 만든 훈훈한 감사와 힐링의 음악회가 되었다.

장학금 기금 마련 걷기대회 후기

매주말마다 섭씨 30도를 넘기며 무뎠던 날씨가 걷기대회날인 10월3일 토요일에는 쾌적하게 바람까지 부는 좋은 날씨로 기분 좋게 Mission Bay에서의 걷기 모임을 시작하게 해줬는데요.

주말 아침 일찍부터, 항상 너무 감사하게 모인 만들어주시고 수고해주시는 회장단 분들의 사려깊은 준비하에 선후배들이 같이 Mission Bay 아자수가 어우러진 길을 따라 시원한 바다도 보고, 바람도 맞으며 걷기 시작한 코스는 주말 아침 산책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선,후배 각각 삼삼오오 자연스럽게 무리지어 약 2마일 정도의 쾌적한 Bay 산책을 따라 Seaworld가 보이는 곳까지의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코스를 걸었는데요. 여유롭고 쾌적한 코스라 선후배간 겹으며 최근 한국 영화얘기,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고 최근 대회 1위 입상도 하셨다는 선배님 말씀, 첨단

Biotech 전문가 후배들로부터의 Neuron은 평생 무한 재생될 수 있다는 인간한테(?)에 희망(?)을 주는 정보 등등, 즐겁고 편안하고 유익한 대화도 나눌수 있었던 듯합니다.

선후배간 즐거운 대화 속에 쾌적한 Mission Bay에서의 산책을 마친후에는 양나래 김진우(아기 김시연 포함, 아빠 이름과 Duet으로 지누션이라고도 하던데요) 동문의 점심 Delivery 수고 덕분에 너무 푸짐하고 맛있는 점심으로 산책 후의 또 다른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H Mart Food Court 의 맛난 음식(사장님의 자발적(?) Discount 포함)을 주문해 주신 최홍수 부회장님도 너무 수고해주셨고요.

동문회 모임을 몇번 참여하진 않았지만,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건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너무 건강하시고, 멋진 생활을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을 뵈는게 후배들한테는 힘이 되고, Guide가 된다는 것하고, 각자 분야, 현장에서 훌륭한 Career를 쌓

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선, 후배님들을 뵈는 것도 동문회 참석할 때마다 너무 기분 좋고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자연스럽고 멋진 사진 찍어주시느라 수고해주시는 심상철 부회장님도 (Hawaii on Mission Bay 연출 사진도 오늘의 작품중 하나) 너무 감사하고요. 장학금 기탁해 주시고, 점심시간에 맞추어 떡을 기부해 주신 여성위원장 박윤정 선배님도 뵈게 되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귀가하는 길에는 혼자사는 싱글(임시 싱글들 포함)들에게 남은 맛있는 음식을 휘둘러 가게 도와주신 따뜻한 동문들의 정에 감사했고요. 확보된 식량보따리를 들고 든든하고, 행복해 하며 돌아온 멋진 주말 아침 걷기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려깊은 모임, Event 준비로 멋진 시간 만들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회장단 여러분 및 동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Walking on the M-Bay’ 후기였습니다. <이진의(자연대 92)>



HAPPY
THANKSGIVING



[영화이야기] 『겨울나비』

김규민 감독의 영화 ‘겨울나비(Winter Butterfly)가 뉴저지 소재의 PSALTNK(Prayer·Service·Action·Love·Truth for North Korea) 후원으로 10월 31일 서울대 미주총동창회(회장 손재욱)가 위치한 캄보리비전센터 강당에서 상영되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묘사되는 북한의 기아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낸 영화는 12살 한 소년과 엄마의 이야기다. 화사한 화면에서 북한 조선소년단 유니폼의 아들은 요리할 닭을 잡는다. 목을 졸라 잡아야 한다는 엄마의 말에 아들은 순종할 뿐이다. 닭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본 적이 없는 아들과 결



프린스턴 한국문화연구회 주최 〈재미한인사회: 과거, 현재 및 미래〉강좌 열려



23년의 전통의 ‘프린스턴 한국문화연구회 (이사장 이종희 MD, www.koreana-mericandata-bank.org)’가 10월27일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및 퀸즈대학 (the Graduate Center and Queens College of CUNY) 사회학 석좌교수 민병갑(문리대 66, 사진) 교수를 초청해 〈**재미한인사회: 과거, 현재 및 미래**〉라는 주제로 강좌시간을 가졌다. 이번 주제는 조국의 격동기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머나먼 미국 땅에 건너와 언어와 문화 장벽을 탐과 눈물로서 극복하며 미국의 중요한 아시안계 소수 민족으로 성장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로, 우리들의 현 위치를 알아보며 우리들에게 앞으로의 이정표를 제시해 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프린스턴 한국문화연구회’는 1992년 프린스턴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세대들을 위하여 한국학교를 운영하고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지역 내의 뜻 있는 동포들에 의해 세워져 1992년 이동식 박사, 신대민 선생 등의 연사로 시작해 다수의 서울대 동문들을 비롯 한 100명에 가까운 미국 사회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석학들의 강좌를 계속해 이번 90회를 맞게 되었다. 이번 강사로 초대된 민병갑 교수는 1970년 문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 후,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CUNY 퀸스칼리지내에 재외한인사회연구소를 설립 운영 중이며 1만2000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미국사회학협회(ASA)에서 수여하는 평생공로상을 아시안으로 는 유일하게 수상한 주인공이다.

다음은 이날 강연의 요지이다.

훈식 날 먹어봤다는 엄마의 대화를 보며, 언젠가 만났던 12살 탈북소년이 떠 올랐다. ‘이제껏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뭐야?’ 라는 질문에 “어렸을 적에 삶은 계란을 먹어봤는데요.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하던 소년의 모습이 영화 속의 아들 모습과 겹친다.

산에 가서 마른 나뭇가지를 등에 지고 와 토막으로 자르면 병든 엄마는 그걸 조그만 손수레에 담아 장마당에 끌고 가 팔아 양식을 마련하는 단조로운 삶이다. 장마당 이래야 좌판을 벌인 대 여섯명이 전부인 어느 시골 구석의 이야기이다. 장마당 이웃이라든가, 지고 오는 나뭇가지를 검사하는 검문소의 군인들과 마을의 당서기 같은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부조리는 엄마와 아들의 생존이라는 지고의 문제 앞에 별 의미가 없다. 산에 갔던 아들이 무거운 나뭇가지들을 등에 지다 미끌어지며 산비탈을 데굴데굴 구른 후 정신을 잃는다. 사흘 후에야 심하게 다친 다리를 골며 간신히 집에 돌아온다. 그리고 더 이상은 움직일 수도 없어 누워 있을 뿐이다. 장마당에 네다 팔팔감이 없으니, 양식을 구할 도리가 없다.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는 영화는 끔찍한 비극을 향해 전개되어 나간다… 칼로 목을 베어 죽이면 아까운 피를 흘려버리게

되니까 대신 목졸라 죽인 닭을 요리해 엄마와 나누어 먹는 행복한 꿈은 북한 사회가 꿈꾸는 지상낙원이 이루어지면 가능해질까? 겨울에 며칠 파산한 날씨로 문득 겨울잠 고치를 헤집고 나와 살겠다고 몸부림치다 결국 얼어 죽을 수 밖에 없는 겨울나비. 누구의 잘못으로 잘못 태어나 몸부림치다 미칠 수 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나?

간략한 영화인데 여운이 길다.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한국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이런 환경에서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김규민 감독의 말이다. 감독 자신이 1999년 25살의 청년으로 탈북해 그동안 한국영화계에서 일해 왔다. “이런 영화는 아무도 만들려 하지도 않고, 만들어도 상영 공간을 얻기 힘들지만, 그럴수록 제가 해야 하는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극한 상황에 처한 이런 인간의 비극을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세상을 향해 말해보고 싶습니다.”고 김 감독은 영화상영 후 주어진 관중과의 대화를 통해 밝혔다.

헤어지기 전, “인구의 10분의 1이 굶어 죽었는데, 자식이, 아내가 굶어 죽는데, 굶어 죽으나, 총맞아 죽으나 이 판사판인데, 어째서 북한의 체제가 뒤집어지지 않았나요?” 필자가 물었다. 한국과 미국의 식량원조가 오히려 북한의 붕괴를 가로막은 원인 중 하나였다는 김 감독과 더 많은 대화를 계속해보자며 후일을 약속했다.

(김정형(공대 68))



사회는 전보다 훨씬 더 미국 주류사회와 접촉되어 있다. 또한 한인복지기관과 정치신장력 기관이 미국 정부 및 미국 정치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재미동포사회의 주류사회와의 접촉이 크게 강화되었다.

재미동포사회가 2000년 이후 미 주류사회와의 접촉이 훨씬 더 강화됨과 동시에, 한국 이민자와 젊은 세대 한인들은 모국인 한국과도 강한 유대를 가지고 밀접하게 접촉되었다. 이것은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비행기 여행, 통신 수단 및 미디어의 활용도가 높아져 한인 동포가 한국을 쉽게 방문할 수 있고, 미디어를 통해 한국 문화 소식을 매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정착국에서 본국과 조국가적 연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변화이다.

현재는 재미한인사회가 미국 주류사회는 물론 모국과도 큰 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이민자들이 매일 더 보람되고 자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인구학적으로 앞으로 2, 30년 동안 한인사회의 2, 3세대인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 족의 혼(타 민족 배우자와의 결혼) 비율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혼혈한국인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재미한인사회에 ‘민족성 소멸’의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민족성 소멸’이

란 유대인 민족을 제외한 미국의 백인 민족처럼 미국사회에 거의 완전히 동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일본 민족은 매년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수는 아주 적은 반면, 족외혼자와 혼혈인들의 비율이 아주 높아서 ‘민족성 소멸’의 문제에 당면해 있다. 한인 족외혼 부부의 수와 혼혈인 수가 커져도 매년 유입되는 한국 이민자수가 크면 ‘민족성 소멸’을 둔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현재 타 아시아 이민 민족은 80년대에 비해 이민자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한국 이민자수는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2,30년 동안 계속되면 재미한인사회도 오늘날 일본 민족이 직면한 ‘민족성 소멸’의 위협을 느낄 것이다.

앞으로 민족성 소멸을 완화시키고 유대인 민족처럼 미국에서 계속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한인 사회 내부에서는 타 민족과 결혼한 한인 부부와 그 혼혈아들을 한인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한인사회에서 소외되어 있지만 완전히 한인의 피를 이어받은 12만명 정도의 미국 내 한국 입양인들도 한인 사회의 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연자가 소장으로 있는 퀸즈대의 재외한인사회 연구소가 올해 11월에 한인 입양인 성인들의 자서전적 이야기를 발표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원인으로 이러한 취지에서다.

[건강칼럼] “선생님, 어떻게 이런 환자를 두고…” – 잇을 수 없는 환자



조중형 (의대 63)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병원의 신참 인턴으로, 직접 환자를 다루는 의사로서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나는 정신없이 또 온 몸으로 뛰고 있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 중환자에 대한 두려움, 책임감, 다른 동료 인턴들과의 경쟁심, 또 자존심 등으로 제판에는 열심히 일하며 인턴 첫 한달을 마쳐가려니, 몸도 마음도 지칠대로 지쳐가고 있었다.

가물에 콩 나듯이 드물게 하던 당시의 심장 수술, 30%를 넘나들던 심장 수술 사망률등등…, 그러다 보니 중환자는 많았고, 당시의 한국 실정상 중환자실도 따로 없었고, 인공 호흡기도 원시적 버드(Bird) 호흡기 한 두대 밖에 없고, 동맥 산소 분압력을 잘 장비 하나 없던 당시의 서울 대학 병원 형편이었다.

주치의나 수석 레지던트, 교수님들은 하늘 같이 높고 무서워만 보이는 신참 의사의 시절이었다. 그저 시키는 일 잘하고, 수술장 들어가 졸면서 주수서다가 야단

[수필]



박평일 (농대 69)

겉로 비추어 오랫동안 손질이 가지 않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크를 하자 얼굴에 눈머를 햇살보다 해맑고 따뜻한 미소를 띄운 금발 할머니가 문을 열고 “하이 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었다. “하이, 메어리,

행복에 대한 특별한 비결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아름다운 날씨군요.” “너무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이제 여름도 다 간 것 같습니다.”

서로 악수를 나눈 후 그녀는 나를 거실로 인도했다. 거실에는 75세가 넘어보이는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하이, 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며 파란미소를 나를 반겼다. 온 집안이 노부부의 행복한 미소로 가득차 있는 듯 했다. “은퇴 후 무료

이고 있었지만, 안타까운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 주위의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였다.

환자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주치의나 위의 교수님분 들로부터도 특별한 지시나 더 새로운 치료방침이 내려오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자주 그 방에 들러보고, 혈압이나, 호흡을 체크하고, 그냥 무엇을 하는 척하다 다시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다른 환자들의 문제를 더 바빠져, 뛰어나며 한 이틀밤을 거의 새우고 난, 어느 날 밤 이 소녀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얼굴은 왜 그렇게 예쁘게 보였던지?

쇠약해진 앙상한 몸매, 창백한 얼굴에 커다란 눈동자..

있었다. 아마 그녀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었을 듯…

그러나 경험없고 피로에 절은 신참 인턴 나에게서는 그것도 실감이 나지 않았고, 극심한 피로감과 졸음을 못 견디고, 간호사에게 얘기하고 인턴 숙소로 들어와 깊은 잠 속으로 빠져버렸다.

얼마가 지났는지 때를 전화벨이 울렸다. 무엇 때문일까? 내 가슴은 철렁했다. 간호사로 부터 급하게 나빠지는 이 소녀 환자의 상태를 보고받고, 전화를 내려 놓고 나는 정신없이 뛰어내려갔다. 환자는 심 호흡 정지 상태였다.

〈사가고 심장혈관외과의 40년후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소장〉

있는 그대로

“한편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영화를 감상하고 가는 기본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만나야 할 인연은 꼭 만나고 말군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십시오.” 노부부와 아쉬운 작별인사를 남기고 차에 올랐다.

휠체어! 장애인!

문득 72세 나이에 심근경색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는 삼성 이 건희 회장의 휠체어에 앉아 있던 모습, 93세의 고령으로 휠체어를 타고 있던 롯데 신격호 회장의 모습들이 영화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비슷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그러나 분명히 장애인들의 표정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존은 시종 미소를 잃지 않는 행복에 넘친 얼굴이었고 두 재벌 총수는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는 듯한 불안하고 심각한 얼굴들이었다. 도대체 어떤 삶을 더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행복이나? 돈이나? 미소 띤 얼굴이나? 심각하게 굳은 얼굴이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금권만능 사회로 변화되어 간다고 해도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행복은 돈의 埖上에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사람의 埖上에 피어나는 꽃이다.

안의 심폐소생술도 소용없었다. 멍 하니 몇분 앉아 있던 나는 병실 밖의 환자의 어머니께 상황을 알렸다. 그분은 약간 젖은 그리고 월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 보며 조용히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환자를 두고 들어가서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자식을 잃은 그 큰 슬픔을 억 누르며, 이제 갖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의 길에 들어선 이 젊은 의사에게 던진 그 어머니의 조용한 한마디는 내 가슴에 비수와 같이 꽂혔다. 나는 눈을 들어 그 분의 얼굴을 쳐다 볼 수 없었다. 얼굴은 아마 빨개졌을 것이며, 부끄러움으로 나의 심장은 뛰었다.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은 하고 있으면서도— 중환자와 그 가족의 곁을 지키지 않고 잠을 자러 들어가 버린 나… 옆에 지키고 있었어도 별다른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내 속 생각은 냉정한 한 의사의 한갓 구차한 변명과 자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뼈가 저리도록 느끼고 배웠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환자를 두고 들어가서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지금도 생생히 내 가슴에 남아있는 그 어머니의 그 짧은 한마디 질문은 의업에 들어선지 50년이 가까워 오는 나에게 하나의 화두(話頭)였고, 길잡이였다.

〈사가고 심장혈관외과의 40년후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소장〉

행복의 노래

공자는 지식으로 자루 채우라고 하고, 노자는 지식을 자루 비우라고 하네, 본래 아무 것도 없는 혼인 것을, 채우고 비울 것들이 뭐가 있다고? 붓다는 그냥 존재(BEING)하라고 하네. 채우는 것도, 비우는 것도, 존재하는 것도,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네. 예수는 하늘을 낚은 새들을 쳐다보고 들만에 피어있는 백합화들을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하라고 하네.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살라고 하네.

[심리학칼럼]

국방에 비친 이케아 효과

날것을 조리하면서 인간의 뇌 진화, 요리하며 ‘노동의 쾌감’ 느껴보길



박금주 (가정대 77)

요즘 부쩍 요리 방송이 인기이다. ‘삼시세끼’를 시작으로 ‘마이 리틀 텔레비전’ ‘냉장고를 부탁해’ ‘집밥 백선생’ ‘한식대첩’ ‘수요미식회’ 등 가히 국방전성시대다. 셰프들의 인기가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높아졌고,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사람들이 들어차기도 한다. 스스로 요리하고자 하는 사람도 부쩍 늘어나 음식재료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했다. 한 방송이 나간 후 콩치와 고등어 소림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배나 증가하기도 했다. 여전히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중년남자들이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될 정도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이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쾌락을 느끼기 때문이다. 알코올, 마약, 성관계 등과 유사한 쾌락을 느낄 수 있다. 쾌락을 인식하는 뇌의 부분은 도파민에 의해 작동된다. 이러한 도파민 수준을 측정할 실험이 있다. 수컷 쥐가 암컷 쥐에게 다가가서 교미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때의 도파민 수치는 두 개의 치즈버거를 먹는 상태와 같았다. 이것은 코카인을 흡입했을 때와도 같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먹는 행위는 굉장한 쾌감과 행복감을 주며, 이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잘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이 가진 전유물이기도 하다.

아주 오래전 인류 역사가 시작하기 전 무언가 요리하는 행위는 존재했다. 날것으로 먹지 않고 조리하는 것은 인간의 뇌를 발달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은 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약 5분의 1을 뇌에 충당한다. 작동을 하지 않더라도 뇌는 상당량의 신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원시사회의 인간은 소화를 시키느라 필요한 에너지를 축적해서 뇌를 가동시켰을 것이다. 먹지 않은 음식은 그 음식의 칼로리 중 4분의 1만 몸에 흡수되는데 익힌 음식은 대부분이 몸에 흡수된다. 또 날것은 소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요리하는 것은 열을 사용해 음식을 익히

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잘게 자르고 콜라겐과 육류에 있는 결합 조직을 분해함으로써 우리의 세포벽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익히거나 조리된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체내에 여분의 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이 에너지는 인간의 뇌를 작동시키는 데 쓰이고, 이로 인해 인간은 점차 똑똑해져 갔다. 또한 요리는 음식을 먹고 소화 시간을 단축시켜, 인간은 사냥이나 다른 활동으로 이 시간을 소요할 수 있었다. 요리에 의해 인간은 점차 똑똑해지고 그렇게 해서 바로 현재 인간 세상이 구축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요리할 시간 없이 정신없이 살아왔다. 배가 고파서 먹을 뿐, 음식을 만드는 기쁨,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만들려는 노력 없이 매식과 외식에 점차 의존하게 됐다. 최근의 요리 방송은 요리의 기쁨을 일깨우는 것 같다. 따라 하고 싶어지고 또 일단 따라 하다 보니 그 즐거움과 쾌감이 직접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케아 효과’(The IKEA effect)이다. 직접 조리해서 만드는 가구, 이케아에서 이름을 따온 효과다. 직접 만드는 게 수고스러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우리에게 본능적 즐거움을 일깨운다. 원시사회에 스스로 동굴을 찾아내고 그 입구를 풀로 덮어가면서 쉼터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이 맛있고 그 결과가 뿌듯하고 그 과정이 더 즐거운 것이다.

오로지 ‘더 편하게, 더 쉽게’만을 추구하던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는 순간이다. 그렇다. 어떤 일을 위해 쏟는 노력과 노동은 그 과정과 작업의 가치를 높인다. 비단 요리만이 아니다. 인간은 바로 노력의 과정에서 순수한 기쁨을 즐기도록 설계돼 있다. 노동에서 가치 있는 진정한 쾌감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 **띄어쓰기 퀴즈 결과:** 9월호에 실린 띄어쓰기 퀴즈에 정답을 맞추신 동문은 배병옥(음대 58, CA) 동문 한분이십니다. 애석하게 한 두군데 틀리신 참가 동문들에게도 기념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1. 띄어쓰기에맞게쓴후이달말까지보내주세요.	답 1: 띄어쓰기에 맞게 쓴 후 이달 말까지 보내주세요.
문제 2. 동문님정답은하루만에도착했습니다.	답 2: 동문님 정답은 하루만에 도착했습니다.

[시]

웬안도아 단풍 진 길



웬안도아에 단풍이 진다
영경귀 씨앗 매달려 바람에 흔들린다
하늘로 가는 산길에 낙엽이 색색이 뿔굴고
붉은 것, 노란 것, 갈색 것 모두들 모여
파란 하늘인데 구름이 해를 가렸다고 웅크린다

웬안도아에 단풍이 진다
어머니가 하얗게 뿌려줬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아이들도 그 곁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언덕 아래 소나무 가지 사이에서 흰 치마가 나부낀다
천 미터 광장에서 내려다 보았다
산, 나무, 하늘, 멀리 작은 마을
모두가 한 폭의 그림이 되어 나타난 것을 보았다

웬안도아에 단풍이 진다
노랗던 민들레도 뿌리로 남고
결실의 계절도 바람에 불려간다
허리 굽은 나무들이 아직도 세상일을 걱정하는 날
나는 울렁거리는 가슴으로 들었다
이끼 낀 바위가 웃는 커다란 웃음소리를 들었다

*Shenandoah; 미국 버지니아주의
부서쪽에 위치한 국립 공원,
Skyline 산길의 경치가 장관임

서윤석 (의대 62)



서윤석 (의대 62)

[경제칼럼]

꾸준한 자기계발을 위하여



김창수 (약대 68)

필자가 이용하는 톱아일랜드레일로드(LIRR)로 출근하는 대부분의 백인들은 신문, 잡지, 책 등을 읽거나 휴대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무엇인가 하고 있다. 옆사람과 줄곧 얘기를 하거나 셀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동포나 중국인들이 많다.

동양 세 나라 중에서 독서를 제일 많이 하는 국민이 일본인이다. 이들의 독서열은 개인 저축률과 함께 세계 제1위이다. 근검 절약해서 저축을 많이 하고 독서를 많이 하는 일본 국민의 저력이 그들 나라를 2차대전 패전국에서 경제대국의 하나로 끌어올린 원동력이었다.

옛부터 불학무술(不學無術)이라고 해서 배우지 않으면 기술이 없다고 했다. 배우

출퇴근시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리에 앉아서 신문이나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다.

특히 컴퓨터 관련 과목은 끊임없이 수강해야 한다. 노령화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젊은 세대와 호흡을 맞추기 위해 컴퓨터 지식을 넓혀야 한다. 불치하문(不恥下問) 컴퓨터 잘 하는 아랫사람에 물어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경영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경영기법에 관한 독서량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제로 비즈니스맨 중에는 평소에도 비즈니스 운영에 관해 어떤 지식도 습득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이 꽤 많다.

비즈니스를 위한 시장조사 제품구입 판매촉진 광고 재고관리 인사관리 임금계산 회계,세무관리 내부통제 재정계획 리스크 관리 등 여러 분야에 관해 독서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한다.

흔한 예로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을 계산하지 않은 채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경우를 더러 볼 수 있다. 손익분기점은 고정비를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매출 수준이다. 즉 렌트 광열비 통신비 기간요원의 급여 등 매상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꼭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먼저 계산한 후 판매액 중에서 평균 원가를 뺀 조이익(Gross Margin)의 비율을 구하

불학무술(不學無術)이라고
배우지 않으면 기술이 없다고...

려면 독서를 해야 한다.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은 매일 접해야 현대의 정보사회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문이나 인터넷에 실리는 것만 쫓아다니면 시사적이고 단편적인 것만 접하게 되어 주관을 세운다거나 비판력을 기른다는가 미래를 지향하는 안목을 갖기에 미흡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주간이나 월간 잡지이고 더 나아가 특정 분야마다 양서(良書)로 인정받는 서적들이다.

독서할 시간이 없다고 하며 책을 가까이하지 않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매일 잠들기 전 반 시간만 할애하면 한 달에 한두 권의 책을 소화할 수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특히 미국 역사 미국 지리 그리고 경제와 경영에 관한 책과 미국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미국 생활을 살찌게 하는 것은 미국 역사와 경제에 관한 책을 읽는 것 못지 않게 각 지역의 공립 고등학교나 대학교 도서관문화센터 등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Continuing Education) 강좌를 수강하는 것이다. 저녁 시간에 이런 기관에 가서 골프 테니스 속독법(Speed Reading) 영어회화 영자문 그림그리기 소셜댄스 그리고 워드.엑셀.인터넷을 비롯한 컴퓨터 관련 과목 등 여러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평생교육 소개 책자에는 이들 외에도 수십 가지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일주일에 하루저녁만 평생교육반에 등록하면 저렴한 수강료로 원하는 코스를 택해서 여가시간을 선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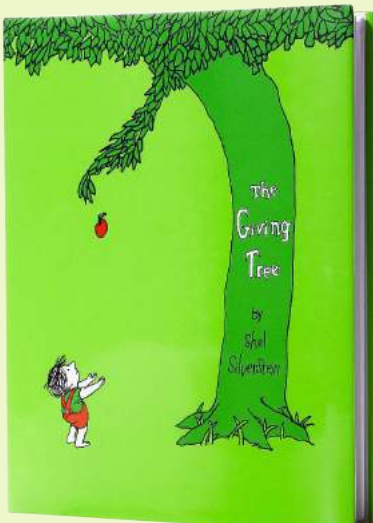


[책소개]

The Giving Tree

Once,
there was a tree...

And she loved a little boy.
And every day the boy would come
And he would gather her leaves
And make them into crowns and play king
of the forest.
He would climb up her trunk
And swing from her branches
And eat apples
And they would play hide-and-go-seek.
And when he was tired, he would sleep
in her shade.
And the boy loved the tree... very much...
And the tree was happy.



By Shel Silverstein

But time went by,
And the boy grew older.
And the tree was often alone.
Then, one day, the boy came to the tree and the tree said:
“Come, Boy, come and climb up my trunk and swing from my branches and eat apples and play in my shade and be happy!”
“I am too big to climb and play” said the boy. “I want to buy thing and have fun. I want some money. Can you give me some money?”
“I’m sorry,” said the tree,”but I have no money. I have only leaves and apples. Take my apples, Boy, and sell them in city. Then you will have money and you’ll be happy.”
And so the boy climbed up the tree and gathered her apples and carried them away.
And the tree was hap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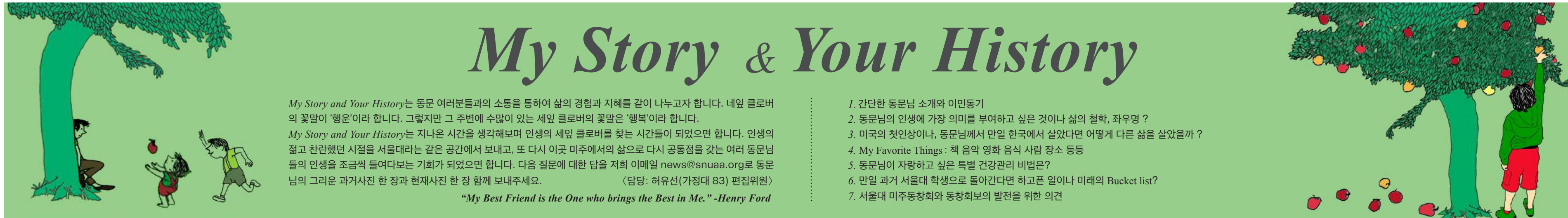
But the boy stayed away for a long time... and the tree was sad.
And then one day the boy came back, and the tree shook with joy, and she said:
“Come, Boy come and climb up my trunk and swing from my branches and eat apples and play in my shade and be happy.”
“I am too busy to climb trees,” said the boy. “I want a house to keep me warm”, he said. “I want a wife and I want children, and so I need a house. Can you give me a house?”
“I have no house”, said the tree. “The forest is my house”, said the tree. “But you may cut off my branches and build a house. Then you will be happy”.
And so the boy cut off her branches and carried them away to build his house.
And the tree was happy.

But the boy stayed away for a long time...
And when he came back, the tree was so happy she could hardly speak.
“Come, Boy” she whispered, “Come and play”.
“I am too old and sad to play”, said the boy. “I want a boat that will take me away from here. Can you give me a boat?”
“Cut down my trunk and make a boat”, said the tree. “Then you can sail away... and be happy”.
And so the boy cut down her trunk
And made a boat and sailed away.
And the tree was happy... But not rea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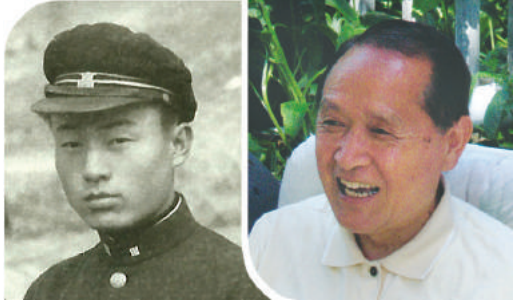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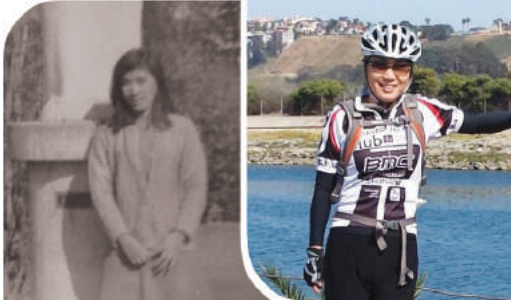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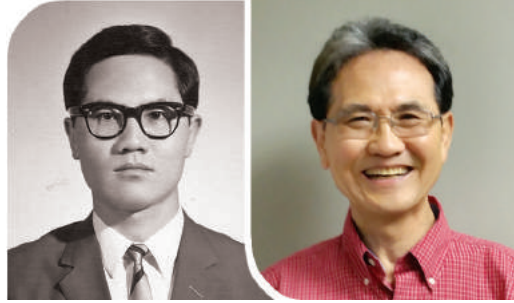
And after a long time the boy came back again.
“I am sorry, Boy”, said the tree, “but I have nothing left to give you – My apples are gone”.
“My teeth are too weak for apples”, said the boy.
“My branches are gone”, said the tree. “You cannot swing on them”.
“I am too old to swing on branches”, said the boy.
“My trunk is gone”, said the tree. “You cannot climb”.
“I am too tired to climb”, said the boy.
“I am sorry” sighed the tree. “I wish that I could give you something... but I have nothing left. I am just an old stump. I am sorry...”
“I don’t need very much now”, said the boy.
“Just a quiet place to sit and rest. I am very tired”.
“Well, said the tree, straightening herself up as much as she could, “well, an old stump is good for sitting and resting.
Come, Boy, sit down... sit down and rest.”
And the boy did.
And the tree was happy...

-The end-





*My Story and Your History*는 동문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있는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 합니다. *My Story and Your History*는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보며 인생의 세잎 클로버를 찾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절고 찬란했던 시절을 서울대라는 같은 공간에서 보내고, 또 다시 이곳 미주에서의 삶으로 다시 공통점을 갖는 여러 동문님들의 인생을 조금씩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 이메일 news@snuua.org로 동문님의 그라운 과거사진 한 장과 현재사진 한 장 함께 보내주세요. <담당: 허유선(가정대 83) 편집위원> *"My Best Friend is the One who brings the Best in Me." -Henry Ford*

이태상(NJ, 문리대 59)  1955년 문리대 종교학과에 입학해 1959년 졸업했고, The Korea Herald/The Korea Times/합동통신사를 거쳐, 미국 대학교재 출판사 Prentice-Hall 한국 및 영국대표직 임무를 수행하다 하와이와 뉴욕 경유 뉴저지주 펄팩 거주. 현재 법정 통역으로 근무. - 열 살 때 지은 자작 동시 '바다'와 사춘기 때 지은 자서시(自敘詩) '코스모스'가 있는데 '바다'는 나의 주기도문(呪祈禱文)이 되었고, '코스모스'는 내 인생순례의 Cosmic Journey가 되었다. - 서울 종로 중심지에 차렸던 주점대표집 '해심(海心)'을 하면서 취생풍사했으리라. - 첫 인상이 코스모스 같아 나의 '코스모스'라고 부르고, 4.19를 전후해서 헬스로 사랑을 고백했으나 실연당해 유서를 우편으로 부치고 동해 바다에 투신까지 했었던, 나의 첫사랑이 '행여라도 남이실까' 읽어주길 간절히 바라는 일념에서 '코스모스 시리즈'를 책으로 내는 것이 나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었다. '코스모스바다' 시리즈 10권 · 해아야, 코스모스 바다로 가자 · 우리 가슴뛰는 대로 - 내 마음은 바다 · 우리 가슴 뛰는 대로 - 내 마음은 코스모스 · 어레인보우 · 코스모스 칸타타 - 한구도자의 우주여행(영문판) Cosmos Cantata: A Seeker's Cosmic Journey(Mayhaven Publishing, Inc.) · 코스미언 인보우 · 무지코 · 어레인보우 칸타타 · 무지코 칸타타 · 코스미언 칸타타(이상 10권은 저서) 반항의 정신/골짜기의 요정들/예언자/뒤바뀐 몸과 머리(이상 4권은 역서) - 만인과 만물을 코스모스의 분신으로 보고 죽도록 사랑하는 것. - 똑같은 길을 걸을 것. - 동문들만의 친목위주가 아닌 그 이상이었던 좋겠습니니다.	박혜옥(CA, 간호대 69)  73년 2월 졸업후 바로 모 간호대학에서 교편 생활(서울대 출신이라 많은 Credit을 받았음)하고 결혼 후 남편의 권유로 이틀만에 미국 직행. -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Open Mind 자세로 대하면 원활한 대인관계가 이루어진다. Let Go를 적절한 시간에 잘 이행하면 심신이 편안하다. - 환경은 다르지만 내가 노력하고 성실하면 나의 자유의지대로 삶을 풍성하게 꾸릴수 있는 나라. 그리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 fair하게 처우하는 나라. 아직 한국에 살았다면 자기개발과 발전없이 대중과 섞이여 나 잘먹고 잘사는데 급급했을 것 같음. - 대화가 통하는 친구와 수다 떨고 맛있는 곳에서 즐겁게 먹는 것. - 항상 나보다 Unfortunate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등바등할 필요없고 Relax하게 되어 정신건강상 좋고, 저의 경우 운동을 좋아하는 남편덕에 Tandem Bike를 주기적으로 타고 있음. 부부들께 추천합니다. - 학생시절에 많은 제약으로 못하였던 클럽활동. 미래의 bucket List: 남편과 Tandem Bike로 유럽여행. - 먼저 미주 총동창회의 새임원진들의 좀 더 나은 신문을 만드려는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젊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용건(GA, 문리대 52 졸)  - 문리대 화학과를 1952년 부산 가교사에서 졸업하였다. 졸업후 부산대에서 5년간 근무 중. 1960년 Fullbright Scholarship으로 University of Missouri에서 Ph.D를 받았다. Tennessee Valley Authority의 National Fertilizer Development Center에서 25년간 연구생활을 하고 은퇴. 큰아들이 살고 있는 Atlanta Georgia에 이사와서 창문 많고 밝은 집을 설계하고 지어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 조실부모 하였기에 사람에 대한 갈망이 크다. 60년대 KIST 한국에서 창설 되었을 때 귀국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때 2남 3녀의 자녀의 장래를 생각해서 미국에 살기로 했다. 지금은 다섯자녀와 12명의 손주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나의 인생의 보람을 느낀다. 나의 삶을 도아주시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한미장학재단 남부지부를 창설하여 25년간 봉사하고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다. - Propeller 비행기로 Tokyo를 출발하여 Hawaii 비행장에 내리니 환영하는 아가씨가 목에 달뎀꼐 향기의 화관을 걸어주어 당황하였지만 마치 천국에 온 것 처럼 여겨졌다. 전쟁폐허가 된 한국에 비해 너무 대조적이었다. 만약 KIST초청으로 귀국하였으면, 대접도 받고 잘 살았겠지만 지금처럼 여생을 평화롭게 살지 못했을 듯 하다. - 우리집 가족은 일년에 두 번 만난다. Thanksgiving에 만나서 나의 생일(11월 24일) 잔치를 하고 여름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미국 국립공원 등으로 가족여행을 한다. 한국에서 전국일주를 하고 또 할아버지 묘에서 24명의 자손이 큰절을 올릴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최근 법정스님의 글을 감명깊게 읽고 있으며, 최근 미국을 방문한 Pope Francis를 보면서 저런 사람의 그림자라도 밝으며 살고싶다 생각했다. - 쉬지않고 움직이는 것, 생애 Hole In One 두번 경험한 50년의 골프, 62년을 같이 살아온 우리가정의 행복의 원천인 마누라 손잡고 산책하고 Gym에 같이 가는 것. Aqua Class의 운동이 수술까지 생각했던 허리를 정상으로 만들어 뒷마당의 잡초정리까지 하고 있다. - Bucket List는 손주들의 결혼식에 건강하게 멋있는 Grandparents로 행복하게 참석하기. 세계 일주.. 특별히 아직 가보지 못한 곳 방문, 고전독서 읽기...등. - 제가 Georgia 동창회를 창설하였을 때 몇몇되지 않는 동문들이 모여서 시작했는데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니다. 미주 총동창회도 생기고, 그리고 몇되지 않는 존경받는 단체로 발전해 나가니 반갑습니니다. 앞으로도 동문간의 사랑과 화합의 마당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무식(PA, 수의대 61)  - 어려운 가정형편에 고등학교도 못하고 서당에서 익힌 한문실력으로 족보를 읽어내 여주의 문중에서 잊혀졌던 증시조 묘를 찾아낸 일이 기억에 남는다. 간신히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수의대 모교대학원을 졸업하고 건국대 축산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중 그전에 캐나다 유학 당시 신청해 놓았던 미국 이민 허가가 나와서 반년쯤 망설이다 풍요로운 미국에서 살아보자고 결심하고 이민와서 현재는 필라 근교에서 은퇴생활 중이다. - 盡人事待天命(진인사대천명) 우리세대 누구나 겪었던 8.15, 6.25, 4.19, 5.16 등등 우리민족의 격동기에 반공과 결판의 약조건 하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다보니 어느덧 70대 중반의 반백이 되어 버렸네... 1969 캐나다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온타리오 수의대로 가는 도중 캐나다 정부관리들의 오리엔테이션을 받기 위해 오타와에 처음 내렸는데 백설이 천지를 온통 뒤덮은 엄정 추운 겨울이었지만 실내에서는 얇은 와이셔츠 차림으로 안락하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 당시 19공탄으로(일산화탄소를 마시며) 난방을 하던 한국현실과 비교하니 여기가 “바로 천국이로구나” 하며 부러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한국에서 살았다면 대학에서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생활을 하다 65세에 은퇴했겠지. - 틈나는대로 성경과 노자도덕경, 고정한시 등을 읽으면서 삶의 지혜를 배우며 요가와 서도를 익힌다. - 過猶不及(과유불급) 생활 전체를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치지 않게 중용을 지키고 가능한대로 즐겁게 살려고 노력한다. 운동은 매일 한 시간씩 집 뒤 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하고 요가, 수영, 골프, 탁구, Gym Exercise 등을 각각 일주에 세번씩 한다. - 동서양 고전시를 좀 더 깊이 공부했으면... - 편지위원들께서 다방면의 인재들을 발굴해서 동창회에 참여시키면 동창회보다 더 다채로워지고 모두가 읽고싶은 회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단.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박양세(AZ, 약대 48)  - 처음 미국에 온 것은 1953년 해군에서 유학을 보내주어서 Maryland Medical School에서 유학했다. 그때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미전역을 기차로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5월경의 Arizona에서 Wild Cat이 선인장 위에 올라가 있던 모습이 특별히 기억에 남아있다. 1973년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의 길을 선택했을 때 Arizona를 선택한 이유가 되었다. - 부모님이 이북에 계시고 서울서 형님과 같이 가정교사를 하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검정고시를 거쳐, 서울 약대를 진학한 것. 화공쪽에 관심이 많았다. 43세에 Arizona에 와서 특별한 State law 때문에 약리학 공부중 수학으로 전공을 바꾸어 엔지니어로 일하면서까지 Arizona를 떠나지 않았다. 선인장과 다육식물이라는 560 페이지에 달하는 식물도감을 편찬한 것이 의미있는 일 중 하나이다. - 만일 한국에서 살았다면 술을 좋아하는 습관때문에 지금처럼 건강하지 않았을 것 같다. - 좋아하는 책은 소설가 이기영의 고향, 심훈의 상록수, 이광수의 사랑 등 한국 소설들이고 미국에 산 이후 한국가요를 즐겨 듣는다. - 정확한 식사시간 엄수와 규칙적인 걷기, 아침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 하기 등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어깨 수술 후에는 골프를 자제하는 등 힘든 운동은 삼가고 있다. - 만일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현재의 대학생들처럼 좋은 시설의 강의실과 도서관에서 마음껏 4년의 학창시절을 공부에만 열중하며 보내고 싶다. 전쟁 중인 한국의 힘든 시기에 그저 빨리 졸업만 해야했던 그 시절이 아쉽다. Bucket List는 북한의 고향에 가보는 것이다. 통일이 이루어져 모든 이념이 다 정리, 용서되어서 고향을 방문하여 보는 것이다. - 서울대 동문들이 좀더 연결고리를 가지고 활동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동문들이 동창회보에 글을 쓰길 바라며, 각 지부 들의 소식을 실어주길 바랍니다.	공순옥(MD, 간호대 66)  - 내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어디서부터 어떤 이름으로 소개를 해야 하는지 아직도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은퇴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아직도 바둥거리는 삶에 자신감이 없어서 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일로는 아직도 매릴랜드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으면서, 한국에는 삼성 임상대학원, 충남대학 간호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산둥대학에 방문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개인사업으로는 볼티모아에 정신신경과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한국노인들을 상대로 한국양노원을 개설하여 미국 노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봉사일로는 Johns Hopkins 병원에 일부인 Howard General hospital에 재단이사로 있고 보건국과 건강보험관리사업 기관에 이사로 있으면서 하워드 카운티 군수 건강자문의 일부를 맡고 있고 한인 사회에서는 한인회 회장을 거쳐 한국노인회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미국에 온 동기는 간단하다. 대학 졸업반에 있을때 고등학교에서부터 알던 남자 친구가 유학생으로 미국을 간다고 결혼을 약속하자고 해서 결혼을 약속한 다음 대학을 졸업하자 마자 미국에 먼저 와 있던 남자 친구 따라와서 결혼 학생 살림을 차렸다. - 나에게 주어진 삶의 철학은 하루 하루를 의미있게 낭비하지 않고 살면서(Seize The Day)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에(Mindful Health Maintenance)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인생의 지침길은 사양에서 말하는 직선으로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동양의 유교 사상인 삶의 길을 동글게 유유하게 사는 것이 나의 철학 지침이다. - 미국에 첫살림은 Iowa City 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옥수수밭에 거의 모두 농부인줄로 알고 있나 같은 동양인을 본 미국인들이 주위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유리병에 담겨있는 인형의 대접을 받은 인상을 잊을 수가 없다. 나한테 동양인 이기에 차별대우를 해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나를 도와준다 해도 별로 고마움을 피부에 느끼지 못하고 그저 고향인 한국 생각에 젖어 미국에 대한 첫 인상은 그저 답답하다. 미국에 오지 않고 한국에 살았다면 내 여동생들같이 나 자신의 주체성보다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그리고는 누구의 엄마로 불리면서 하루 하루를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에 매어 즐기려고 노력했을 것이 분명하다. <18면에 계속>
--	--	---	--	--	---

[수필]

‘좋아요’의 미학



이태상 (문리대 59)

최근 페이스북이 ‘좋아요’ (Like) 를 보완할 버튼을 만들고 있다고 밝히자 그 이름이 ‘안 좋아요’ (Dislike)가 될지, ‘싫어요’가 될지, ‘슬퍼요’가 될지 ‘별로예요’가 될지 관심을 끌었다.

또 최근 한국에선 가수 임재범(53)이 3년 만의 새 앨범 발표를 앞두고 선공개곡 ‘이름’을(2015년 10월 6일) 음원사이트에 올렸는데 “바람처럼 들플처럼 ‘이름’없이 살고 싶었던 남자가 소중한 한 사람에게만큼은 특별한 ‘이름’이고 싶다는 주제란다. “데뷔 30주년을 맞아 보컬리스트로서는 초심으로의 회귀, 음악적으로는 발전을 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주에서 가장 작으며 가장 가벼운 소립자인 중성미자의 존재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 ‘작은 중성자’라는 뜻의 중성미자가 워낙 작고 전기적으로도 중성인데다 무게도 있는지 없는지가 불분명할 정도로 가벼워 존재 확인이 극히 어렵지만, 현재 확인된 중성미자의 무게는 양성자의 1/1836인 전자의 100만분의 1에 불과하며 1광년 길이의 남을 통과하면서도 다른 어떤 소립자와 충돌하지 않을 정도로 작다고 한다.



이 중성미자는 태양에서 만들어져 날아

온 것인데 관측된 수치가 이론적으로 예측된 수치의 1/3에 불과했던 것을 중성미자가 날아오는 동안 계속 ‘형태’(Flavor)를 바꾼다는 사실을 알아낸 사람이 바로 일본의 가지타 다카아키와 캐나다의 아더 맥도널드다. 이 공로로 이 두 사람이 201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됐다.

이 중성미자의 변형은 우주 탄생의 비밀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138억 년 전 ‘빅 뱅’과 함께 우주가 태어났을 때 물질과 반물질의 비중은 거의 같아, 이 둘이 서로 만나면 폭발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과 같은 우주가 생겨났는지는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왔는데 중성미자의 변환 과정에서 물질이 반물질보다 조금 더 남았다는 설이 최근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천문학자나 과학자도 아닌 문인인 내가 이를 감히 아주 쉽게 풀이해 보자면 이 ‘물질’이 ‘좋아요’이고 ‘안 좋아요’가 ‘반물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지만 나머지는 다 우리 각자의 선택사항이 아닌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일찍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우주 만물, 세계 만인, ‘좋아요’ 버튼만 누르고 또 누를 대상만도 부지기수, 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좋아요’ 버튼만 누를 시간만도 너무 너무 부족한데, 어찌 ‘안 좋아요’나 ‘싫어요’ 또는 ‘슬퍼요’나 ‘별로예요’로 너무도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수 있랴.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 무엇이든 좋아하고 사랑할 때 천국을, 싫어하고 미워할 때 지옥을 맛보게 되지 않던가.

그러니 ‘반물질’의 ‘안 좋아요’가 카오스(Chaos)를 불러 온다면 ‘물질’의 ‘좋아요’는 ‘아브라카다브라’(Abracadabra) 주문 외듯 코스모스(Cosmos)를 피우리라.

[동문들이 사는 이야기]

노인 봉사의 숨은 인재, 오광동 동문



▲ 오광동 동문과 공순옥 동문

오광동(공대 51) 동문은 앞에 나서서 이름을 내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뒤에서 한국노인들의 즐거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다.

특히 한국노인들이 미국사회에서 주어진 복지를 찾기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다. 이런 봉사를 부족한 저와 함께 하고 계시다.

더군다나 오 동문은 몸도 불편해 마음대로 거동하는데 제한이 있어도, 한국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카운티 노인복지국장과 시민국장을 만나 한국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로비 중이시다.

서울대학의 기본훈련이 되어 있어 로비를 하셔도 정확한 데이터와 필요성을 너무 정확히 지적하며 한국노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그는 기본 권리

은 똑같다. 육체 건강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정신 건강도 보호하면서 그날 그날의 스트레스를 좀더 긍정적으로 풀어가면서 의미있는 삶의 연장으로 생각한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이 이어지지 않을까?

6.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대학생다운 로맨스에 취하고 싶다. 많은 학교 책보다는 나 자신의 정신건강과 인생의 가르침이 될 수 있는 로맨스의 길을 걷고 싶다 아마도 그것이 지금의 Bucket List일지도 모르겠고……

7. 동문으로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너무 불평하는 분위기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창회회보 편집위원들한테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열어주고 그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육심갈아서는 선후배가 의견도 교환하고 미국에 있는 동문들이 한국보교의 취향도 알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지침돌,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동문들의 성공적인 주류사회진출 등에 대한 비결을 알려줄 수 있는 마당이 되었으면 한다.

와 다른

지난번 한국의 추석 명절을 위해서는 미국의 주류사회에 있는 노인복지국의 이 사들은 물론이고 정부 인사들까지 초청하여 푸짐한 한국 고요 음식은 물론이고 한국의 전통적인 오락과 무용 그리고 가요등을 소개하여 한국의 추석 명절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150명이 넘게 참석한 한국노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길이 되어 모두들 평생 잊을수 없는 즐거움이었다고 만족하시면서 헤어졌다. 또한 참석한 주류 사회의 인사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고 한인사회에서의 존경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모습은 한국 2세들의 모범이면서 다른 동문들로부터 격려와 호응을 받고 계시다.

오광동 동문의 아름답게 사는 삶의 모습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글: 공순옥(한호대 66)〉

[시번역]



김지영 (사대 69)

매년 이맘때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되면 한국문학계는 실망에 빠진다. 왜 우리나라의 문인은 노벨상을 타지 못하나.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영문(또는 다른 외국어로) 번역이 적절치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본인에게(어떤 연고로) 조병화 시인 기념사업회에서 매주 한편의 시와 영역본이 오고 있어서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영어전공자는 아니지만 영어번역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번역을 담당한 분(물론 요즘 한국에서 떠드는 원어민으로 국내 모대학의 한국문학 영문학박사)의 문학적 자질에 의문이 있고(잘나가는 영어권 문인이 한국에서가서 한글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려할 것인지) 또 작품의 뜻과 문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번역자인 교수의 한국어 제자가 영어로 초역을 한 것에 손을 본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즉 한국시의 번역의 질은 초역을 담당한

한국인 제자의 문학적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본인이 조병화 시인의 시를 30편쯤 받고 영역본을 살펴본 결론이었다. 그래서 심심풀이로 영역본을 개역 연습을 하는 중에 재미가 들었고 그 중 한편을 소개한다. 또 이제는 미국에서 영어권에 오래 지낸 분들이 많은데(물론 한글의 Sarcastic 표현도 잘 이해할 것이고) 한국문학의 영역에 힘을 보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미번역 문학가협회 사무국장, 아크로폴리스 타임즈〉

〈지구〉	〈The World〉	〈Globe Trekker〉
유적은 물결치는 끝없는 망향	Exile Is endless Undulating Nostalgia	Wandering is Nostalgia Floating on the endless waves
잠을 잃은 소라가 스스로를 버리고 바다에 밀린다.	The trumpet-shell Awake as always Casts self aside and Drift at the mercy of the tide.	Insomniuous sea-snail Abandons its domain, and Drifts around riding the tide
- 조병화	- 공식 번역자 O'Rouke	- 본인의 개역

[경제칼럼]



최은화 (경영대 78)

한 인 들 도 즐겨 마시는 쿼어스 맥주의 제조업체인 밀러쿼어스가 노스캐롤라이나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 두번째 규모의 밀러쿼어스는 1위 업체인 앤하이저 부시와 함께 지난 2008년 이후 판매량 감소에 시달려 오던 중 마침내 8개 공장 중 하나를 없애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회사 측은 판매량 축소의 원인으로 경기 위축과 맥주 종류의 폭발적 증가, 그리고 시장의 세분화 등을 지적했다. 이중 경기 위축은 2008년 이후 몇 년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유추해 보면, 경기가 회복된 2010년 이후에도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아무래도 두 번째 이유인 소비자의 맥주 선택폭이 많아진 것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베이비부머 시대 이후의 가족구조도 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우선 1인 또는 2인 자녀 가족이 대세를 이루면서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가정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사회규범에 짜 맞추는 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특성에

맞춤 교육환경이 제공되면서 새로운 세대 즉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하는데 더 적극적이다.

이전 세대에서는 사회적 보편성을 쫓아가는데도 급급해, 남이 무엇을 하는가를 기준으로 내 삶의 목표가 정했던 것에 반해, 새로운 세대는 ‘나’를 위한 삶에 목표가 주어지는 현상이 뚜렷하고 여기에 시대적으로 온라인이라는 방

법론이 가미되자 개성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밀러쿼어스의 생산기지 축소결정은 이러한 세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현상이다. 온라인 세대 이전만 해도 미국의 대표 브랜드였던 버드와이저와 쿼어스를 마시는 것이 당연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소규모 맥주제조 회사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공정으로 만드는 크래프트 맥주가 인기를 얻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소규모 회사는 브랜딩을 위한 투자를 할 수도 없었지만 온라

인 세대에는 대형미디어를 통한 광고가 아니라도 자신들만의 세계를 공유하는 사회적 미디어를 통해 충분히 알릴 수가 있다. 개성을 원하는 세대와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소규모의 장인정신의 기업들 간에 협고 싸게 서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힘에 눌려 창의적 기업이 생겨나기 어렵다는 통념은 온라인의 세상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깨어나가고 있다.

이 흐름에서 집단적 브랜드인 쿼어스 맥주도 서서히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이다. 맥주는 더 이상 맥주가 아니다. 나를 표현해주는 개성이다. 개성준중이 기업경쟁력의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다.

〈유니티은행장, 아크로폴리스 타임즈〉



강창욱 동문 수필가로 등단, ‘창조문예’ 신인추천 받아



강창욱 (의대 55)

볼티모어 지역에 거주하는 강창욱 박사(정신과 전문의)가 한국에서 발행되는 월간 문학지 ‘창조문예’ 신인추천을 받아 수필가로 등단했다.

강 박사는 어렸을 때부터 의식화되어 있던 원손잡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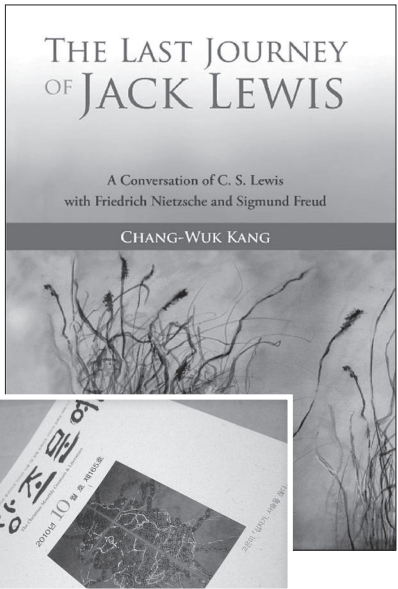
형식으로 써내려간 ‘원손잡이’와 이민의 땅에서 제 2의 고향과 같은 곳을 방문하면서 벌어진 예상 밖의 사건에 대한 감성적인 작품 ‘코네티컷의 추억’으로 추천 받았다.

심사를 맡은 박이도 시인은 “그의 작품은 정신의학적 지식과 오랫동안 전래된 일반상식이 상충하는 점을 다양한 예피소드로 전개, 흥미를 배가 시킨다”고 평했다. 수상작은 ‘창조문예’ 10월호에 실려 있다.

강 박사는 “내 친직인 정신의학은 어학

능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직업이다. 언제부터인가 모국어로 글을 쓰고 싶다는 욕심이 간절하게 다가와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마치 연어가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말 문학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당선소감을 말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의대 졸업 후 예일대에서 공부한 강 박사는 69년부터 메릴랜드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활동하다 은퇴했다. ‘춘원 이광수와 정신의학의 발전’ 등의 논문을 비롯 2013년 영문소설 ‘The Last Journey of Jack Lewis’ 등을 펴냈다.



[역사칼럼] 退溪 李滉과 孤峰 奇大升(고봉 기대승)의 4-7 論爭



전무식 (수의대 61)

退溪는 人間の本性을 研究할 때 4단은 事物의 理에 該當하는 것으로 人間心理의 本然之性(original nature)에서 發現되는 것이고 7정은 事物의 氣에 해당되는 것으로 人間心理의 氣質之性(dispositional nature)에서 發現되는 것이라고 解釋하였다. 이러한 退溪의 理論을 窺은學者 奇大升이 反論을 提起하므로 各者의 主張과 反論이 便紙로 8년간이나 持續되었다. 그 당시 퇴계는 成均館 大司成(지금의 국립서울대학교 總長에 該當)으로 元老學者였으며 奇大升은 얼마전 文科에 壯元한 젊은 學者였다. 이 論爭에서 退溪는 奇大升의 主張을 無視하거나 殺(묵살)하지 않고 謙遜하게 傾聽했으며 奇大升도 元老學者인 退溪의 自尊心을 건들이지 않고 尊敬心を 보이면서 自身の 意見을 披瀝(피력)했었다. 結局은 退溪가 自身の 主張의 一部를 조금 修正 함으로 써 論爭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 論爭의 發端은 주만 鄭地璵(정지운)이라는 性理學者가 아이들에게 性理學을 좀더 쉽게 가르칠 目的으로 天命圖說(천명도설)이라는 冊子(책자)를 써서 當代의 最高學者이며 이웃에 살던 退溪 先生에게 그冊(책)의 檢討를 付託했는데 退溪가 한번 읽고나서 그중 한 句節의 文句를 修正하였다. 즉 “四端發於理”(사단은 리에서 발원 하고) “七情發於氣”(칠정은 기에서 발원 한다)라는 敘述(서술)이 너무 受動的 表現 같으니 차라리 “四端理之發”하고 “七情氣之發”이라고 좀더 能動的으로 敘述하는 便이 좋겠다고 한 것을 가지고 奇大升이 反論을 提起한 것이다.

退溪의 見解는 理는 하늘의 理致이고 氣는 그것의 具現材料 이므로 서로 섞일수 없다는 “理氣不相雜”(이기불상잡)이었다. 論理的 思维(사유)에서 形而上學의인 理는 形而下學의인 氣와 서로 다르기 때문에 “理는理, 氣는氣”이지 서로 섞일 수 없다는 “理氣不相雜”이었다. 또 4단은 그 發現의 結果가 恒常 좋기 때문에 理에서 나오는 것이고 7정은 그 發現의 結果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으므로 氣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4단은 理에서 생기고 7정은 氣에서 생긴다는 單純한 理論인 理氣不相雜을 主張한 것이다. 參考로 朱熹(주희)는 그의 著書에서 “理氣不相離”하고 “理氣不相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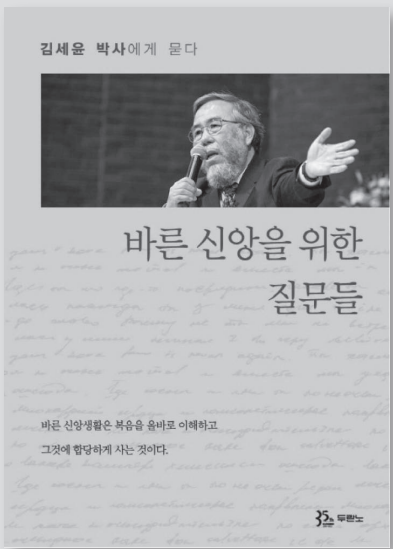
末年에 퇴계는 “修訂天命圖說(수정천명도설)”이라는 책을 著述해서 自身の 見解를 發表했다. 퇴계는 徹底한 哲學的 思索(사색)을 學文의 出發點으로 하여 演繹的方法(연역적방법, deductive method)을 採擇하였으며 平素에도 獨斷(독단)과 權威(권위)를 排擊(배격)하고 謙遜한 態度로 學問에 臨하였던 模範의인 學者로 評價된다. 壬辰倭亂때 日本으로 들어간 그의 冊(책) 46卷 45冊이 日本 刻板으로 復刊(복간)되어 後日 에도시대(徳川時代) 日本 儒學이 꽃을 피우게 되는 契機(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明治時代 初까지 日本 儒學과 教育 理念의 基本精神을 形成하게 된다.

<繼續>

[책소개]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은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가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 기독교 잡지와 신문들과 한 인터뷰, 그리고 그것들에 기고한 몇 개의 기사를 모아 구성한 것으로, 현 실정에 맞게 철학을 가한 것이다.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사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세워지도록 안내한다.



저자: 김세윤 (문리대 65)

저자 김세윤은 서울대학교, 맨체스터대학교, 튀빙겐대학교 등에서 수학하고, 케임브리지의 틴데일 라이브러리에서 연구하였으며, 맨체스터대학교에서 Ph. D.를 받았다. 그 뒤 누자 튀빙겐대학교에서 Humboldt 연구원으로서 연구하였고, 싱가포르와 미국 칼빈신학교, 고든콘넬신학교, 풀러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였다. 국내에서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와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 및 한인 목회학 박사 과정 담당 부학장직을 역임한 후, 지금은 신약학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저서로 The Origin of Paul’s Gospel(Tübingen: Mohr Siebeck, 1981; 제 2수정증보판 1984; Grand Rapids: Eerdmans, 1982; Eugene: Wipf & Stock, 2007) 과 그 한역인 《바울복음의 기원》(엠펜오, 1994), “The ‘Son of Man’” as the Son of God(Tübingen: Mohr Siebeck,1983; Grand Rapids: Eerdmans, 1985; Eugene: Wipf & Stock, 2011)과 그 한역인 《“그 사람의 아들” - 하나님의 아들》(엠펜오 초판, 1992; 두란노 개정판, 2012), Paul and the New Perspective(Grand Rapids: Eerdmans, 2002; Tübingen: Mohr Siebeck, 2002)와 그 한역인 《바울 신학과 새 관점》(두란노, 2002), Christ and Caesar(Grand Rapids: Eerdmans, 2008)와 그 한역인 《그리스도와 가이사》(두란노, 2008)가 있다.

그 외에 두란노에서 출간된 《구원이란 무엇인가》(2001), 《복음이란 무엇인가》(2003), 《예수와 바울》(2001), 《주기도문 강해》(2000), 《요한복음 강해》(2001), 《빌립보서 강해》(2004), 《고린도전서 강해》(2007), 《침의와 성화》(2013) 등이 있다.

[프롤]



이석호 (공대 66)

잘 익은 복숭아 같고 한여름에 활짝 핀 장미같은 동네 처녀를 짝사랑을 했었다. 그러나 이 아가씨는 나의 간절한 구애를 뿌리치고 나이 많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그 사람을 따라 바다 건너 먼 곳으로 떠나가고, 내가 출장 찾아가 세레나데를 부르던 그녀의 창문은 이제 불이 꺼지고 어둡다.

이 여인의 언니는 온 동네에 이름난 수재인데다 집안도 좋은 나를 마음에 꼭 들어 해서 동생을 나와 결혼시켜 보려고 강권하다시피 했었지만 말을 듣지 않는 동생 때문에 무척 속상해 했었다.

나와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친구 수석을 나한테 한번도 뺏지 않았었던 이 여인의 이름은 “瑞香” 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꿈에 시냇가에 瑞香木(Daphne) 한그루가 서있는 것을 보고 얻은 딸이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디서나 “香이”로 통했다.

중학교 다닐때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香이는 이듬해 어머니마저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 언니가 길러야 했다. 초등학교 시절 성격이 유별나서 여자애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사내애들과 같이 공놀이나 철봉놀이, 말타기 같은 거치런 놀이하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나하고 같은 반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은 남자애들과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누가 오래 버티나 해서 단연 압도적인 기록으로 우승한 일도 있었을 정도였다.

그후 초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둘은 각자 중학교 진학을 하게 되어서 서로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한동네에 살기에 나와 香이와는 자주 마주칠 수 밖에 없었다. 나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변모해 가는 香이에 대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디 적당할 장소에서 한번 만나자고 제의해 볼까 해서 분위기를 잡으려고 은근한 동작을 취하면 그럴때 마다 香이는 킁킁 웃으면서 “애, 너 왜 그러니?” 하고 능

청을 떨며 무드를 깨곤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나는 가끔 그녀의 집이나 그녀의 강의실이 있는 캠퍼스를 찾기도 했지만 그녀는 단 둘이든 여럿이든 단 한번도 나와 마주 앉아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여전했다. 차라리 매끄러운 매너로 차갑게 거절해 준다면 단념이라도 할 수 있으련만 아무런 기척도 없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그녀의 손오공같은 마술은 내게 그러한 허점마저도 허락지 않았다.

우리 누나는 어릴적부터 香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애, 너 그 불여우 살랭이 같은 애가 뭐가 좋다고 그러니?” 하고 핀잔을 주면서 香이를 멀리하라고 타이른 일도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설계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香이의 뒷꽂무니를 따라 다녔고 香이의 나를 기피하는 태도 또한 여전했다.

그런식으로 세월이 가면서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香이가 두 주일 후 결혼한다는 청첩장이 온 것이었다.(허걱!)

장난끼마저 유별나서 남자들을 골탕먹이는데 명수였던 그녀는 예상대로 심술을 부리려는 듯, 자기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려줄 장식물로 나를 초대했고, 그녀를 사랑한 죄로 나는 피로 연애까지 억지로 끌려가 그녀가 자기 신랑과 둘이 정답게 손을 잡고 “사랑해 당신을”을 듀엣으로 노래하는 것을 들어야 했다. 그날의 괴로움의 절정은 내가 그녀의 결혼식 축하까지 불러야 했다는 것이었다. (으아아아---ㄱ)

내가 축하로서 세레나데 “니나”를 부르고 나자 香이는 초등학교 반창고때 내가 香이 앞에서 과시를 하려고 있는 품을 다 잡아가며 부른 적이 있었던 “Fenesta che lucive”를 애틋송으로 신청해서 나를 더욱 당황케 했다.

활짝 개였던 하늘과는 반대로 마음속에 시커먼 먹장 구름이 두텁게 깔려있던 나에게 그 결혼식은 실연자살한 불쌍한 남자인 나의 장례식이나 다름없는 것이었고, 머릿속이 완전히 혼돈이 되어 있었던 나는 신랑의 얼굴을 볼 여유조차도 없었다.

香이가 자기 남편과 신혼여행

내사랑 香이 <1편> - 불꺼진 창

을 떠나기 위에 자기 형부가 보내준 검정색 세단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그날 밤 제 두사람 사이에 일어날 일을 상상하니 머릿속이 어질 어질, 숨쉬는 것조차도 힘이 들어지며 나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으며 오열이라도 터져나올 듯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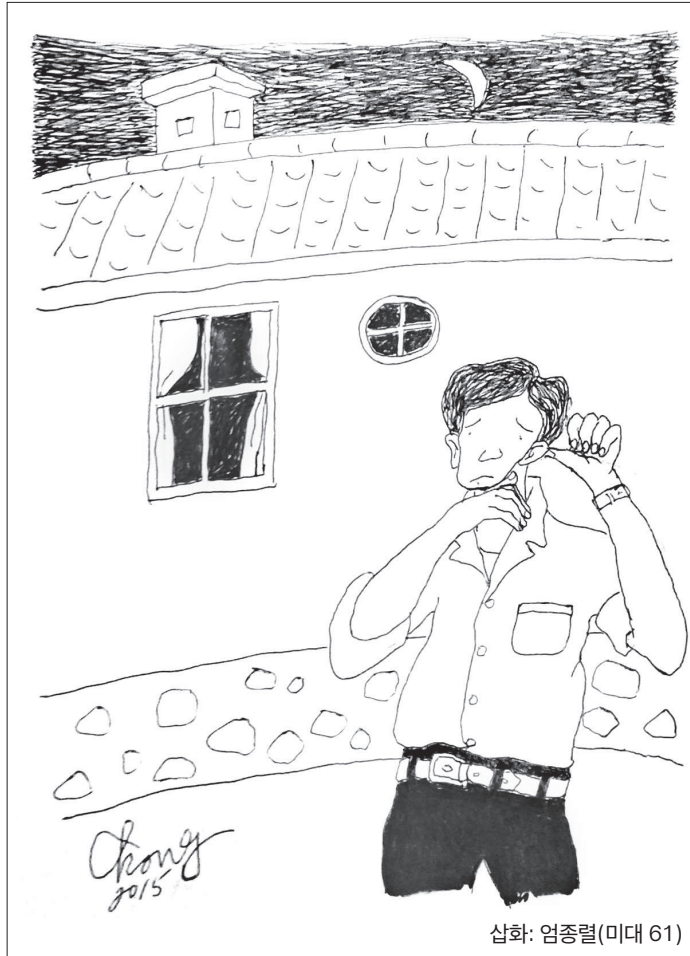
마침 香이 결혼식에도 참석할 겸 친정에 들렀던 누나는 그날 저녁 술이 잔뜩 취해 집에 돌아와 설디 설게 우는 나를 달래다 말고 “비라먹을 기척에”라고 香이 욕을 했다. 우는 나를 꼭 안아주면서 부드럽게 타이르는 아버지의 위로의 말솜에 나는 마음이 어느정도 가라앉았다.

그후 나는 특하면 사무실을 비

좋아 맞벌이를 하며 어렵게 살고 있어서 언니가 자주 돈을 부쳐줘야 한다고 하며 힘든 생활 때문에 남편과 가끔 다투는 모양이어서 지금이라도 친정으로 도로 데려오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다는 속마음을 내게 털어놓는 것이었다.

그바람에 행여나 香이가 남편과 헤어지고 다시 돌아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긴 나는 그 집을 좀더 자주 찾았었지만 어느날 드디어 香이가 찾아들을 출산했다는 가장 걱정했던 소식을 듣고야 말았다.

이렇게 십년의 세월이 흘러가고서, 香이가 고향에 들를 거라는 소식이 들려 香이네 집을 찾



삽화: 엄종철(미대 61)

우고, 상사병을 앓다 죽은 남자의 뉘티라도 된 기분으로, 흐느적 흐느적 香이가 살던 집 근처를 배회하곤 하기를 얼마동안 했었다.

그러다가 총격이 좀 가라앉자, 흑시나 하는 못된 기대를 품고 가끔 그집에 들려 香이의 언니에게 香이의 소식을 묻곤 했는데, 그때마다 香이의 언니는 나를 무척 반가와 하며 미국에 가서 사는 동생의 이 소식 저 소식을 전해 주는 것이었다. 그럴때 마다 香이의 언니의 나를 치다보는 눈빛은 “아까와 죽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다가 어느날은 香이의 언니가 香이의 남편이 원래 무능한데다 직장마저도 형편이 안

는 것을 삼가했는데 얼마후 동네 장거리에서 香이와 우연히 마주쳤다.

또렷하던 윤곽은 여전했지만, 굵어진 몸매의 중년 아줌마 차림에 안경까지 끼고 주름살과 기미를 화장으로 감춘 모습을 보이기 싫은지, 저만치서 얼른 외면을 하면서 마주 오던 길을 90도 우턴을 해서 피해간다. 그러자 머리카락이 옆으로 흘러내리면서 당황해서 숨이 찬듯 벌어진 입에서 금방 파 냄새라도 날것 같은 그 옆 모습이 더욱 눈에 보여 처량한 마음까지 든다.

차마 마주 보기가 미안해 나 역시 가던 길을 ㄱ자로 꺾어서 그녀와 완전 180도 역방향으로

만들어 버린후, 근처 중국집에 숨듯이 들어가 안쪽 구석자리에 털석 앉는다. “그날 죽은 이는 내가 아니라 香이 그대였도다...” 연인의 명복(?)을 빌며, 독한 중국산 고량주를 잔에 따라 아직도 내 가슴속에 영정처럼 간직하고 있는, 잘 익은 복숭아 같고 활짝 핀 철쭉의 장미꽃 같은 옛 그대로의 香이의 모습앞에 붓는다.

한시간쯤 후 나와 가슴속의 여인은 함께 취하여 무어라고 주고 받으며 부슬비가 내리는 진창길을 우산도 없이 약간 비를 거리듯 터덜거리며 걷는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지 염불을 하는지 가끔 “Fenesta che lucive”의 가사를 본떠 즉흥으로 만든 유창한 구절을 곡조와 가사가 짝이 맞거나 맞거나 웅얼웅얼 계속 지겨려댄다.

“무덤에 가서 관을 열고 보니 너의 굵던 옛모습 어디 갔는고 장미꽃 같고 복숭아 같던 그 모습 어이 이리 검푸르게 변색하여서 악취속에 썩어가고 있던 말인고 노래가 짧아졌던 그 입술에도 이제는 구데기만 굴릴거리네” 가슴속의 여인이 역시 취한 소리로 대답한다.

“결혼은 죽음과 같은 것이요. 결혼이라는 산 죽음이 참 죽음보다 괴로운 것은 썩어가는 고통을 느껴야 하기 때문이랴오. 그것은 노쇠로 인한 육신적 고통이 아니고 구데기같이 영혼을 파먹는 험한 세파에 황폐해져가는 자신의 인격이 내뿜는 악취에서 느끼는 자신에 대한 절망이 주는 영적인 고통이랴오. 나와 함께 고통스럽게 썩어가는 내 남편도 좀 불쌍히 여겨주요”

이말을 하는 香이의 음성은 마치 무덤의 초혼에 응하여 나타난 망자의 뉘의 그것인양 음산하기 초차 하다.

마음속의 香이의 모습에 대한 추억이 아까 본 나이든 모습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느끼며 이불 속으로 파고 든다. 가물가물 잠이 들어 가는 동안에도 자문자답의 대화는 계속된다.

男問: “이제라도 남편과 헤어지고 내뽕에 와 같이만 안되겠소?”

女答: “그건 안되요”
男問: “어째서요?”
女答: “당신마저 잃을 순 없어요”
....
...

<계속>

[동문들이 사는 이야기]

한인사회 첫 마라톤 동호회 조직-고희의 러너 박명근 동문

“50대에 운명처럼 만나 20년, 내년까지 풀코스 100회 돌파”



KART 발족하던 1995년부터 시작
300여회 출전, 풀코스 92회 완주

환갑 되던 해엔 산악마라톤 도전
지옥의 울트라마라톤 50Km도 정복

“마라톤은 페이스 조절 가장 중요
조급했던 성격도 여유로워졌죠”

땀박질에 몰두하는 이유는 다 제각각이다.

피서 독일 전 외무장관은 체중감량을 위해, 소설가 하루키는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서, 생물학자 베른트 하인리히는 달리고 싶다는 인간 본능에 매료되고 싶어서라고 말한다. 도대체 무엇일까. 평범한 이들의 눈엔 사투나 다름없어 보이는 이 마라톤을 목 놓아 예찬하는 이유는. 하루키의 서적을 뒤적여 보고 지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지만 여전히 그들이

무하다 1976년 LA로 이민 온 그는 현재 약사인 아내 박영자(68)씨와 함께 이스트LA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화여대 약대 졸업 후 도미해 다시 공부를 시작한 아내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1987년 약국을 열기 전까지 마켓과 리커스토어 등을 운영했던 그는 타고난 성실함과 끈기로 오래지 않아 안정적인 이민 생활을 일궈냈다.

그러나 십 수 년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비즈니스에 매달려 살다보니 중년에 접어들면서 군데군데 아픈 곳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땅한 운동을 찾다 생각해 낸 게 달리기. 유년시절부터 유난히 땀박질에 관심도, 소질도 있었던 터라 그는 처음 몇 년은 혼자서 취미 삼아 쉬엄쉬엄 뛰었다.

그러다 우연히 신문에서 LA마라톤을 완주한 피터 김(현 KART 코치)씨의 기사를 접한 뒤 연락처를 수소문해 1995년 3월, 관심 있는 한인 6명이 의기투합해 미주 한인사회 최초의 아마추어 마라톤 동호회인 KART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연습에 나섰다.

“이민생활 20년 동안은 먹고 사느라 정신없었죠. 그러다 50대 초반, 외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서 흥가분해진 한편 갑자기 삶의 목표가 없어진 듯 인생이 공허하고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운명처럼 만난 것이 마라톤이었고 마라톤을 하면서 이런 갈등과 방향이 조금씩 사라졌죠.”

달린다. 고로 나는 존재 한다

KART 조직 후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10km 단속 마라톤 참가를 시작으로 내친김에 그해 12월엔 켈버시티에서 열리는 풀코스 마라톤대회까지 완주했다. 당시 그의 기록은 3시간56분1초로 첫 풀코스 대회 참가자로서는 꽤 우수한 성적이었다. 그 후 KART 조직 1년만인 1996년 3월 LA마라톤 출전을 필두로 그는 지난 20년간 각종 크고 작은 대회를 무려 300여회나 출전하며 마라톤과 동고동락해 왔다.

이 수많은 대회 중 그는 풀코스만 총 92회를 뛰었고 2004년과 2005년엔 러너들의 꿈의 무대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덕분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메달(참가기념 메달 포함)만도 600여개에 이를 정도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가 마라톤을 하며 얻은 것은 단순히 좋은 기록과 메달만이 아니다.

“마라톤은 페이스 조절이 가장 중요한 운동이죠. 그런 훈련을 통해 조급했던 제 성격이 어느새 여유 있게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뛰면서 생면부지의 선수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걸 보면서 더불어 사는 기쁨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죠.”

그의 이런 지극한 마라톤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강력한 것’으로 옮겨가

게 된다. 이를 하여 듣는 것만으로도 어마무시한 산악마라톤이다. 산악마라톤이란 말 그대로 평지가 아닌 산악지역을 뛰는 것. 환갑이 되던 해인 2003년 장장 50km에 이르는 ‘불독 울트라 마라톤’(풀코스인 42.195km보다 더 긴 구간을 달리는 마라톤)으로 산악마라톤에 입문, 2010년엔 1년 동안 참가한 총 13회 대회 중 6회가 산악마라톤이었을 만큼 산악마라톤에 폭 빠져 살았다.

첫 대회 참가 기록 6시간40분을 시작으로 산악마라톤 러너들에게는 지옥의 코스라 불리는 마운틴 디스어포인트먼트(Mt. Disappointment 50K)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서는 8시간14분으로 완주했다.

“마라톤은 인생살이랑 참 많이 닮았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대신 해 줄 수 없는 게 그러하고 기조 없이 어떤 요령이나 편법으로 해낼 수 없다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육심만 앞서 무리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인생과 가장 닮았죠. 대신 노력한 만큼 정확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 마라톤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달리기를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나 이처럼 지독한 마라톤 사람 덕분에 그의 무릎관절은 쉴 날이 없었고 결국 2011년 말 의사로부터 계속 뛰면 평생 뛰지 못할 수 있으니 당분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에 이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지난 3년간 마라톤 잠정 휴업에 들어갔다 드디어 지난해 다시 풀코스를 뛰어도 된다는 의사 말에 본격적으로 연습에 돌입해 지난해 12월, 3년 만에 처음으로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지난 11일 롱비치 대회 참가를 포함, 총 네 번의 풀코스를 완주했고 내년 12월까지 각종 마라톤 대회 참가계약도 마쳤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까지 100회 풀코스 완주 기록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키는 그의 저서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말한다. 나는 올해를 세계의 여든가에서 또 한 번 마라톤 풀코스 레이스를 하게 될 것이다. (중략)그렇게 계절이 순환하고 해가 바뀌어간다. 나는 또 한 살을 먹고 아마도 또 하나의 소설을 써가게 될 것이다.라고. 박명근 동문 역시 뭐 크게 다르겠는가. 그는 오늘도 내일도 여제처럼 달릴 터이고 그렇게 계절은 바뀌어 갈 것이고 하루키의 소설과 맞먹는 그만의 멋진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을 테니까.

(이주현 객원기자, 출처:미주중앙일보)

[수필]



허유선 (가정대 83)

내가 미국에서 보낸 기억에 남는 Thanksgiving은 나에게 친절했던 앤의 집에서 보낸 Thanksgiving이다. 앤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아주 구두쇠처럼 사는 주부였지만, 남편과 큰 집으로 이사한 후 본인 아이들 외에 아이 두명을 입양하여 키우며 우리 부부가 결혼초에 나가던 교회의 교인이었다. 앤이 가을이 되는 그즈음부터 나에게 탕스기빙에 무엇을 할건가를 몇번 묻더니 자기네 집에 오라고 거절못할 느낌의 초대를 했다. 미국에서 보통 탕스기빙은 가족들과 보내는데 우리처럼 가족이 아주 멀리 있는 몇몇 가족을 초대한 것 같았다.

그 당시 미국인들의 포트락 파티 이야기를 많이 들은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하다고 생각해서 무엇을 가져가면 좋겠냐고 몇번 물었는데 파티가 가까워지면 얘기해 주겠다고 하더니 드디어 일주일 전에 자기 탕스기빙 디너에는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자작시를 준

추석과 Thanksgiving

비해 와서 디지털 먹기 전에 읽는다고 하는 것이다. ‘시’라면 대학 때 박동규 교수님 밑에서 수강했던 시학개론으로 시작해서, 미국 올 때도 잘 간직해 온 기형도 시집, 항상 시로 시작해서 편지글로 끝나는 나의 자작시 등, 시의 일가견이 있는 나는 안되는 영어로 한 5문장 정도의 쉬운 시를 만들어 갔다.

드디어 시를 낭독하는 디지털 시간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는 대부분의 시가 성경의 시편을 읽는 것 같고, 짧은 감사의 성경구절처럼 읽는 시들이 감사의 기도처럼 들렸다. 내 시를 들은 앤이 나에게 말해 준 “유선, 너 정말 시를 썼구나! 훌륭하다.”라는 코멘트가 참피할 정도였다. 또한 내가 놀란 것은 그 구두쇠인 앤이 준비한 디너가 음식은 물론 최고의 디지털과 커피였다는 놀라운 사실이 었다. 그 딸이 나에게 자기 엄마가 일주일 내내 음식 장만으로 바빴다, 하는 자랑스러운 얼굴을 보여주었을 때, 나 또한 나도 이민자로서 이 미국에 사는 한 탕스기빙 디너는 내가 꼭 준비하리라 다짐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추석도 사실 Thanksgiving과 마찬가지로 주부의 일이 많은 그런 명절이다. 친구들은 벽안의 남편 덕에 시월드 세계를 모른다고 시댁 얘기를 나랑하게 되면 속터진다, 라고들 한다. 나 또한 그들의 숨가쁜 친인

척간의 도리와 효도에 대해 생각하면 속이 터질것 같기도 하다. 나 또한 받은 것도, 받아올 것도 없는 미국식 결혼으로, 아버지 환갑에 \$30을 보내자, 라는 남편과 그동안 많은 투쟁과 협상으로 살아왔으니까... 한가지 분명한 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허물을 다 덮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맘을 딱 먹고 이것만큼은 내가 베풀자 하면 한량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쿠폰을 오리고, 세일을 기다렸다 모든 걸 소핑하던 앤이 가장 비싼 터키와 가장 좋은 감자로 만든 매쉬드포테이토, 애플 파이, 향 좋은 커피, 아름다운 꽃장식으로 초대받은 모든이들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넘치게 축복해 주었던 그 빛나는 테이블을 잊을 수 없다. 진정한 감사는 Obligation이 없다는 것을 그때 느꼈다.



앤에 대한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두명의 입양아에게는 꼭 비싸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운동화를 사주었는데, 앤의 아이들은 그냥 평범한 신발을 항상 신고 있었다. 지금은 전국에 있을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앤은 나중에 그 두명의 입양아를 친부모에게 효도하게 이끌어준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 이후에도 많은 탕스기빙 디너를 보내면서, 이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할리데이가 아닌가 생각한다. 추식에 떠오르는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올해의 Thanksgiving은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다. <변지위원>

인턴 The Intern

[영화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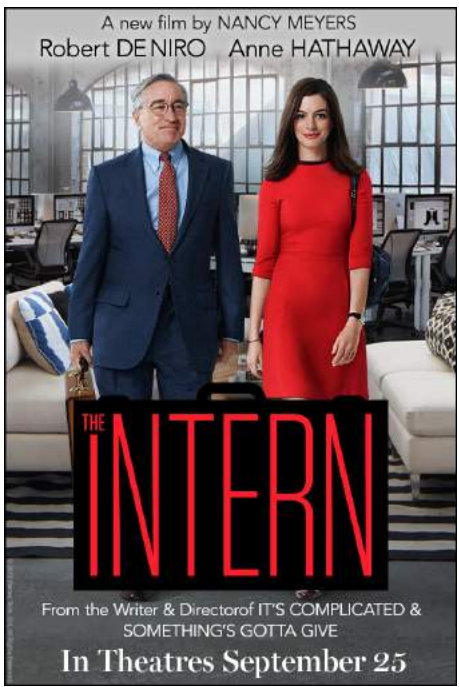


임연철 (문리대 68)

배우 로버트 드 니로가 70세의 주인공 벤으로 출연해 중후한 연기를 펼친 영화 ‘인턴’ 관람을 전후 해 은퇴 후의 삶과 관련된 두 가지 글을 읽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이 달 초 관람한 ‘인턴’은 드 니로가 시니어 인턴으로 30세의 젊은 여성 CEO(앤 해서웨이)가 운영하는 온라인 패션 스타트 업(신생 벤처)에 채용되어 패어난 에피소드를 따뜻한 코미디로 보여주는 영화다.

정부시책 때문에 여성 CEO는 시니어 인턴을 억지로 고용하지만 40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부사장으로 은퇴한 할아버지가 어린 동료는 물론, 여성 CEO의 삶에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건네는 충고는 (중략)그렇게 계절이 순환하고 해가 바뀌어간다. 나는 또 한 살을 먹고 아마도 또 하나의 소설을 써가게 될 것이다.라고. 박명근 동문 역시 뭐 크게 다르겠는가. 그는 오늘도 내일도 여제처럼 달릴 터이고 그렇게 계절은 바뀌어 갈 것이고 하루키의 소설과 맞먹는 그만의 멋진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을 테니까.

이런 여주인공에게 아버지 같은 드 니로가 깎듯한 예의를 갖추고 상사가 혼란을 겪을 때마다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며 올 때 손수건을 건네주는 장면은 감동적이다. 컴퓨터도 제대로 못 다루고 인턴하는



영화인턴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고향(논산)의 까마득한 초등학교 선배가 95세 때 손수필이 요즘 젊은이를 말로 ‘심쿵(심장이 쿵할 정도로 놀람)’ 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호서대 설립자이자 명예총장으로 지난 8월 말 103세로 타계한 강석규 박사가 수필의 작가이자 주인공이다. 수필에서 고인은 65세 은퇴 후 ‘남은 인생은 덤이 다’라며 허송했던 30년에 대한 후회를 털어 놓고 있다. 시골에서 농사짓다 독학으로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34세에 서울 공대에 들어가 졸업 후 교수가 된 후 1970년부터 교육 사업을 시작한 고인은 65세 정년 이후 충분히 월만한 자격이 있었다.

60세 이전에는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자신이 없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체험도 못하지만 60세에서 75세에는 행복이 뭔지 알면서 발전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은퇴 후의 삶이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발전하는 시기’라는 노(

老) 철학자의 회고는 60대와 70대는 노년이 아니라 ‘신 중년’임을 새삼 깨닫게 만든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65세 이상을 고령인구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 전체 인구의 7%가 65세 이상이면 고령화(aging)사회, 14% 이상이면 고령(aged)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post aged)사회라고 하는데 한국은 이미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14.3%, 2026년에는 20.8%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1할이 넘고 곧 2할이 넘는 고령사회 한국에서 ‘인턴’에서 보여주는 드 니로의 삶, 고 강석규 박사의 수필, 김형석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6070신 중년의 삶에 산뜻한 지표로 다가온다.

‘인턴’에서 했던 주인공 벤의 말이 떠오른다. “뮤지션(음악가)에게 은퇴란 없다. 단지 음악이 사라지면 멈출 뿐... 하지만 내 안에는 아직 음악이 남아 있다.” “음악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할 일이 있다는 것으로 강석규박사가 95세에 어학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6070이 ‘발전하는 시기’라는 김형석 교수의 회고이나?는 질문에 “제일 좋은 나이가 60세에서 75세까지가 아닌가 한다.”는 대답이 마음에 와 닿아 잊혀 지지를 않는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사추기를 맞은 신 중년들은 ‘삶’의 방식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무위도식(無爲徒食)하자는 말아야 할텐데...’ 고민도 깊어진다. 일제시대 충청도 일대의 교육과 기독교 선교에 평생을 헌신한 한 선교사의 정기를 집필 중인데 몇 년째 진도가 지지부진하다. 95세에 후회하지 않도록 펜 끝을 부지런히 놀려야 하겠다.

[여행기]

산티아고 순례길 낙수 <9>



이강홍 (상대 60)

땅끝 -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의 이베리아 반도 대서양 연안. 라틴어 표기로 Finis Terre라 한다. 예수님이 기독교 신앙을 설교하던 시절 언급하신 '세상 끝'이 그곳을 의미하지 않았나 싶다 - 이 가까워지며 고도가 낮아지니 안개가 더욱 짙다. 지난 한 주일 내내 연무 속을 더듬어왔네. 이리다 허무하게 산티아고에 다달을라! 매일 아침 출발시부터 한낮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비슷한 정황이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다. 언제 다시 이곳을 밟아 주변의 풍광을 볼 수 있을까? 지난 겨울 눈비가 많았거나 아니면 심한 추위가 머물렀나 보다. 오늘도 아침부터 뽀얀 안개비를 맞으며 앞서가는 사람들의 단조로운 스틱소음을 쫓는다. 내가 내는 소리는 뒤에 오는 누군가에게 길 안내를 하고 있으리라. 짹! 짹! 짹! 짹! 벌써 40여분을 저 반복되는 소리를 따라 땀을 닦으며 뒤통고 있다. 행여 저 소리 내는 사람이 순례자가 아니라면 나는 가야할 길에서 한참 벗어나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게다. 그렇지는 않겠지..!

이제는 더 버티기 힘든 시간이다. 이름도 안보이는 멋진 돌다리 난간에 배낭을 괴어 어깨를 파고드는 아픔을 풀고 있으려니 멀리 뒤에서 생소한 리듬의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온다. 짹! 짹! 짹! 짹! 보이진 않아도 다른 소리를 압도하는 그 쪽으로 고개



순례길에 세워진 14세기의 성당

를 돌리고 있자니, 이윽고 시야에 신비롭게 나타나는 그 모습은 과거 영화 속에서나 어울릴 상상 밖의 모습! 차양데두리가 큰 까만 모자에 까만색 망토와, 역시 까만 부츠의 금발 여인이 이끄는 축축하게 젖은 까만색 말! 등에는, 한 쪽은 말 막이와 캔버스 구유통이, 다른 쪽에는 그녀의 집이 얹혀진 상상 밖의 생경한 모습에 일순 넋을 잃고 바라만 보았지. 조금 후 결례스럽게 가는 길을 막고 사진을 반복해 찍으면서, 내가 먹은 토마토를 꺼내 말에게 환신도 베풀고. 어디서 출발했는가 물으니 독일의 '어디'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내게 '메르켈'총리를 아느냐며, 그녀의 출신지역인 옛날 동독일 땅이란다. 하도 인상적이고 shocking하여 계속 불들고선 어디서 말을 재우냐고 묻자 교외지역의 펜션 또는 B&B - bed and breakfast - 를 그날 그날 예약한다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나 묻자, 프랑스남

부까지는 아버지가 차로 운반해주어 그곳에서 시작한지 오늘로 2개월11일 났다네!

한동안 동행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더라. 나는 매일매일의 호스텔 예약하는 것도, 짐 일부를 택배발송하는 것도 뻘뻘하고 바쁜데, 저 큰말과 어렵게 그러나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순례행을 하고 있는 그녀에게 경의와 범접 못 할 귀티를 느끼면서 한동안 말 뒤를 쫓아 걸었지. 저 여인은 무엇을 얻으려 떠나왔을까 생각하며...

한낮, 햇살이 나오면서 많은 폐허들이 눈에 띈다. 13세기에 세운 '사리아 성'(Fortaleza de Sarria)의 성곽을 돌아, 14세기부터 자리 잡은 시장을 만나 간식거리를 사 넣고 언덕배기의 알몬드 농장을 지나는데 언제 나를 쫓아왔는지 한국까치가 자지러지게 울어댄다. 골짜기 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빼꾸기까지 우는 소리에 우리 반도가 붙은 '유라시아 대륙'을 실감하며, 봄날의 풍광을 멋지게 토크어 즐긴다. 또 다시 나타나는 폐허화한 고성에는 남은 우뚝 선 탑이 아침나절의 햇빛을 받으며 인상 깊게 양지와 음지를 가른다. 안내문을 보니 15세기 귀족에 대한 한 조각의 불기 - 이르만디뇨스 - 로 아쉽게도 세 개의 탑은 무너졌다네. 우리보다 앞서서 '동학난'이 이곳에서도 있었구나.

내리막길로 내려가니 13세기에 지어진 '막달레나수도원'(Masteiro da Madalena)이 나타나는데, 외벽의 석조조각들이 참으로 정교하고 아름답더라. 많은 관광버스가 도열하고 있어 꽤 유명한 곳이구나 생각하

며 지나치는데 한 남자가 사진을 찍어달라네. 몇 컷을 성의 있게 찍어주자 고맙다며 어디를 가는가 묻는다. Pilgrim으로 Santiago를 가고 있다하니 눈을 크게 뜨고는 놀랜 표정으로 버스 안을 향하여 크게 소리친다. "여기 순례자가 있다!"고... 우르르 버스에서 20여명이 내려서 나를 에워싸고 질문공세다.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오래 걸었느냐? Catholic신자냐? 일행이 몇이나? 문기에 홀로 간다하니, "아호라!"하며 내 어깨를 돌아가며 감싼다. 축복기도나 위로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 위안을 얻는 것일까? 이들은 브라질 어느 성당의 성도들로, 버스로 포르투갈을 거쳐 오는 성지순례 여행중이란다. 오렌지를 여러개 주어 고마웠지만 무거운 짐을 더 얹어주니 원망스럽더군. 가벼운 돈을 줄 것이지... 그러나 고행이 깊어 갈수록 영적인 풍요로움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걸어갔다오.

[여행기]

Trip to Patmos Island <1>



김영(수의대 63) 부부

We have been emotionally drawn to Patmos Island early on. But we don't know when or how the longing for the island started. It has grown slowly over time. She was a small remote uninhabitable island in the Mediterranean off the coast of Asia Minor far away from the world but seven churches in Asia in the Revelation were near-by. It was a perfect setting for the Mystery of the Revelation to happen here.

No easy access to the island and lack of tourism infrastructure in the island requires more time and need careful planning to visit the island. Things are improving but still not fast enough to most tourists. Our opportunity to visit the island came with Sharon's 70th birthday. Our children arranged 3-weeks vacation trip including Istanbul, Ephesus, Patmos island for us.

We flew into Istanbul from Los Angeles and spent first 5 days there. Istanbul was very beautiful city exceeding our expectations. Beautiful houses, old fortresses, colorful spring flowers, blue skies on the both sides of Bosphorus was a spectacular scenery. Istanbul was the birth place of "Byzantine Civilization". It was born when the West met the East in Byzantium (old name of Istanbul) in 5th century and flourished for almost a thousand years until 15th century. The history was written everywhere in the city.

The day trip to the ruins of Troy from Istanbul was a little disappointment. Whether it was a myth or history or a literary creation by Homer, Troy represents all aspects of humanity, war and peace, mighty heroes, love and betrayal, glory and peril, gods and goddess and mortals. How could we not go there? It was a day long driving along the north side of Bosphorus then at the point where Bosphorus meets open Mediterranean Sea, crossed narrow water to the Asia Minor. The ruins were 30 minutes driving inward from there and they were meek a dozen rock piles and a few earthen walls. Back to Istanbul, famous Hagia Sophia and Blue Mosque were nothing but giant halls, no inside decorations, no statues, no paintings either not allowed for religious reasons (Blue Mosque) or existing decorations stripped for the same reason (Hagia Sophia).

We made a special arrangement for the trip to Nicaea, present day Ismit, where the first Christian Ecumenical Council was held in 325 AD. We knew there was nothing even remotely related to the event left, but we wanted clock back to 325 AD and to feel the atmosphere of the history making council. But the trip was cancelled due to heavy rain. After conclusion of visit to Istanbul we took a short flight to Ismir and at the airport we were picked up by the hotel taxi to Ephesus. It took a little over one hour. Ephesus is a interesting place. It was founded by the Greek and conquered by Romans, and remained as Roman metropolis for many hundred years. In The New Testament times it was one of largest Jewish diasporas like Rome, Alexandria, Corinth. Naturally one of the first Pauline Gentile churches was established here. In the course of history Ephesus was destroyed by earthquakes several times. Interestingly every time they rebuilt the city they chose a different site. Most of tourist attractions were Roman era ruins. But Ephesus was known to us through Paul's epistle "Ephesians". Later we learnt that Virgin Mary, led by Apostle John, took a long journey to Ephesus lived and died there and buried underground of St. John's church. Also St. Paul stayed and briefly incarcerated there. We visited House of Mary, St. John's church, Temple of Artemis, the mountain village Sirinse along with magnificent Roman ruins like gigantic amphitheater etc. We left Ephesus early morning for Bodrum by bus.

<1 of 2>



Hagia Sophia

L A / 오렌지 카운티 / 다이아몬드바 / 벨리 / 사우스베이

www.SeoulMedicalGroup.com

www.KtownUrgentCare.com

환자를 진정으로 돌보는 메디칼 그룹,

서울메디칼그룹

남가주 최대 규모 / 최고 의료진 / 최상의 의료 서비스

메디케어, HMO 건강보험을 가지신 분들은 전문의 허가(Refer)가 가장 쉬운 서울메디칼그룹을 택하시고 최고의 의료혜택을 받으세요!

LA Los Angeles

DB Diamond Bar

S South Bay

OC Orange County

여러분들이 강력히 추천하는 남가주 최고, 최대의 크고 튼튼한 서울메디칼그룹(IPA)

● 전체 남가주 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의 확대
[LA카운티, 오렌지카운티, 사우스베이, 다이아몬드바, 포모나, 벨리 등 더 많은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장 많은 주치의와 전문의
대단히 실력이 뛰어난 최고의 의료진들이 참가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현재 17500 여명의 환자분들이 서울메디칼그룹의 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가장 빠른 리퍼럴 시스템 형성
현재 남가주에서 가장 전문의 허가(Refer)를 잘 해주는 메디칼 그룹의 하나

● 다양한 의료정보와 의료혜택 제공
어르신들을 위한 만반의 준비도 갖추고 있으며, 항상 대환영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을 위한 야간진료센터
일/화/수/목/금
저녁 6시~10시
505 S. Virgil Ave., #507, L.A. CA 90020
24시간 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13.384.4000

서울 메디칼 그룹 메디케어 건강보험 메디케어, HMO 보험을 가지신 분들은 꼭 서울메디칼그룹으로 바꾸십시오. 최고의 의료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고 의료진들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가주 최대 규모의 한인메디칼그룹

서울메디칼그룹 SEOUL MEDICAL GROUP 213.800.3852 / 562.766.2009 520 S. Virgil Ave., #507, Los Angeles, CA 90020

차민영 (의대76)

참가 명복을 씁니다



Gerald Shklar
DDS, MS

저의 남편되셨던 Dr. Gerald Shklar 박사는 하바드 치과대학에서 유일한 석좌교수로서, 그의 50년간 (Tufts Dental School and Harvard Dental school)의 교수생활을 통하여 수 천명의 치과 학도, 수십명의 치과대학 교수, 그리고 UCLA의 치과대학 학장으로 계신 박노희 박사를 비롯하여 6명의 치과 대학 학장을 양성한 교육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교수생활을 통하여 335편의 논문과 4권의 치과학 교과서, 그리고 3권의 치과역사학 책을 저술한 세계적인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다방면에 취미와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써 일생을 통하여 flute을 연주하였고 유화와 수채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의 성품이 온유하고 남의 (그의 학생들이나 동료 교수들의) 장래를 복돋아 주는 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일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귀빈이 오셔서 지난 5월29일 하바드 치과대학에서 추도식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동봉하는 것은 그의 사진과 저의 고별가입니다.

Gerald Shklar, DDS, MS

Gerald (Gerry) Shklar, 90, passed away peacefully in his sleep on Wednesday, January 21. Born in Montreal, Canada, he was the son of the late Ann and Louis Shklar and the beloved husband of Se-Kyung (Sue) Oh Shklar. He earned D.D.S. degree from McGill University in 1949. Dr. Shklar moved to the Boston area in 1951 and earned a M.S. degree in oral pathology from Tufts University School of Dental Medicine. He joined the Tufts School after receiving his degree and was a Professor of Oral Pathology from 1961 to 1971. In July of 1971, Dr. Shklar was appointed the Charles A. Brackett Professor of Oral Pathology in what is now the Department of Oral Medicine, Infection, and Immunity at the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and became emeritus professor in 2000.

A widely published researcher, Dr. Shklar was a leading authority on the detection of oral cancer and other diseases of the mouth. He is credited with original findings in areas in which oral disease is linked to other physical illnesses. In 2003 Dr. Shklar and a colleague received the Hayden-Harris Award from the Americ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the academy's highest honor, for "monumental contributions to the history of dentistry." On January 31, 2015 Dr. Shklar will receive a posthumous

"Lifetime Achievement Award" from the American College of Dentists (ACD). Dr. Janice Conrad, secretary/treasurer of the ACD, said that Shklar was certainly the shining star in this profession. Dr. Shklar and his late wife, Judith Nisse, had three children. After the death of his wife, Judith, in 1992, Dr. Shklar married Dr. Sue Oh in 1997. They were colleagues in cancer biology research.

Dr. Shklar is survived by his three children David of Philadelphia, PA, Michael of Newport, NH, and Ruth of Middletown CT; four grandchildren Aron, Emmanuel, Rachel, and Abraham; a sister Iris Shklar Ballon of Montreal and her son, Ian Ballon of Santa Monica, CA.

Private services have been held. In memory of Dr. Shklar's musical accomplishments as a flutist, his wife, Sue, established the Gerald Shklar Award for a DMD student who demonstrates a passion for the humanities as distinguished from the sciences, including fields such as music, art, literature and public service. Gifts may be made to the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188 Longwood Avenue, Boston 02115, or by telephone at 617-432-5356.



오세경 (약대 61)

• 윤숙희(미대 68, 뉴욕): 10월 2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부군: 김명승(상대 65)



〈동문들의 슬픈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1. 고인의 성명, 사진, 소속 대학, 입학 년도 / 2. 주거 도시 (지부) / 3. 유가족 소식, 친구의 추모의 글 등 (연락처) / 4. 고인의 생전 이야기, 취미 등을 news@snuuaa.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12월호 '나눔' 1월호 '희망' 2월호 '인내' 주제로 동문님들의 글과 사진을 news@snuuaa.org로 보내주세요.

원/고/모/집/합/니/다

동문들과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 쓰는 분도 보람있고 독자들에게도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글을 원합니다. 장르는 시, 수필, 평론, 풍토 등의 창작품, 미술, 음악, 영화, 공연예술, 독서, 여행, 역사, 철학, 종교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살고 계신 지역의 명소를 소개해 주십시오. <독자의 광장>에 들어갈 회보에 대한 소감이나 제안을 보내주세요.

건강, 의/약학/간호학, 아동, 노인, 가정, 은퇴재정, 세무, 법률 등의 상담질문도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로부터의 답변이나 칼럼도 신겠습니다. 가능한 한 글자수 2000자, 또는 단어수 500자 내로 해 주십시오(사진이 들어가는 경우, 더 짧게). 부득이한 경우 조금 더 길어도 됩니다. 이 경우 회지 지면 형편에 따라 다음호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워드나 한글로 쓰시고 첨부파일로 보내주세요. 모든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a.org 로.

동창회비·광고 및 업소록비·기타 후원 동문 (2015.7 ~ 2016.6)

동창회비:	남승채(공대 66) 노병호(공대 61) 노영준(문리 48) 문인일(공대 51) 문일영(음대 66) 민병곤(공대 65) 박양세(약대 48) 유기석(문리 60) 지영환(의대 59) California 강경수(법대 58) 강지훈(법대 59) 강영호(의대 57) 강재호(상과 57) 강정수(문리 61) 강정훈(미대 56) 강종경(공대 48) 강희창(공대 57) 고영순(음대 52) 권기상(경영 79) 권오형(사대 61) 김경옥(미대 61) 김계윤(의대 57) 김광은(의대 56) 김교복(농대 63) 김구자(미대 61) 김규현(법대 53) 김기태(의대 54) 김동호(농대 58) 김병완(공대 58) 김석홍(법대 59) 김선기(법대 59) 김순길(법대 54) 김순자(치대 57) 김영춘(수의 64) 김일영(의대 65) 김정복(사대 55) 김정희(음대 56) 김준일(공대 62) 김창무(음대 53) 나두섭(의대 66) 나승욱(문리 59)	이양구(상대 57) 이영모(의대 53) 이영일(문리 53) 이원익(문리 73) 이원택(의대 65) 이장길(치대 63) 이재룡(공대 71) 이정욱(가정 71) 이정옥(공대 52) 이정화(공대 52) 이종진(농대 65) 이종희(공대 53) 이창무(공대 54) 이재진(문리 55) 이종민(상대 58) 임동규(미대 57) 임동호(약대 55) 임문빈(상과 58) 임정란(음대 76) 임춘수(의대 57) 임화식(치대 59) 장 준(인문 85) 전상욱(사대 52) 정동구(공대 57) 정예현(상과 63) 정유식(의대 58) 정진수(공대 56) 정현진(간호 68) 정 황(공대 64) 제영혜(가정 71) 조동준(의대 57) 조민진(상대 58) 조정시(공대 60) 주정래(상과 65) 최경선(농대 65) 최영진(간호 69) 최왕욱(공대 69) 최완환(공대 57) 최종권(문리 59) 진학송(약대 82) 최경수(문리 58) 최규식(상과 64) 최정미(사법 55)	황동하(의대 65) Carolina 이범세(의대 59) DC & MD & VA 강도호(사회 81) 강준희(의대 71) 공순옥(간호 66) 권오근(상과 58) 권철수(의대 68) 김내도(공대 62) 김동훈(법대 56) 김명자(법대 52) 김영기(공대 73) 김용덕(의대 53) 김창호(법대 56) 김형민(상대 84) 도상철(의대 63) 박일영(문리 59) 백순(법대 58) 서윤석(의대 62) 서휘열(의대 55) 석균범(문리 61) 신용계(의대 62) 양광수(공대 73) 오광동(공대 52) 김승희(법대 55) 박정일(의대 66) 이상강(의대 70) 임영진(의대 54) 오테요(의대 56) Illinois 강화영(문리 50) 고병철(법대 55) 구형서(공대 69) 김갑중(의대 57) 김규호(의대 58) 김성일(공대 68) 김승주(간호 69) 김용주(공대 69) 김일훈(의대 51) 조진문(치대 58) 송재현(의대 46) 이덕수(문리 58)	홍영석(공대 58) 홍용식(공대 51) 김중권(의대 63) 박창익(농대 64) 안창현(의대 55) 이재택(법대 60) 전영진(미대 58) 정진목(의대 50) 조동건(공대 69) 최준희(의대 58) 한기빈(공대 52) 황현상(의대 52) Georgia 김순옥(의대 54) 김국화(공대 56) 김영진(문리 55) 조문희(공대 56) 오경호(수의 60) 임수암(공대 62) Hawaii 최경윤(사법 51) Heartland 구명순(간호 66) 김경숙(가정 70) 김명자(문리 62) 김승희(법대 55) 박정일(의대 66) 이상강(의대 70) 임영진(의대 54) 오테요(의대 56) New England 강화영(문리 50) 고병철(법대 55) 구형서(공대 69) 김갑중(의대 57) 김규호(의대 58) 김성일(공대 68) 김승주(간호 69) 김용주(공대 69) 김일훈(의대 51) 조진문(치대 58) 송재현(의대 46) 이덕수(문리 58)	이상오(문리 61) 이시영(상대 46) 이용락(공대 48) 이정일(농대 57) 장기남(문리 62) 장시경(약대 58) 전정철(공대 55) 조현원(약대 50) 최혜숙(의대 53) 최희수(의대 67) 합성택(문리 55) Michigan 고광국(공대 54) 김국화(공대 56) 김영진(문리 55) 김창수(약대 64) 김현중(공대 63) 김희자(미대 66) 문석면(의대 52) 김권식(공대 61) 김영남(사대 53) 남세현(공대 67) 성욱진(의대 87) 박은규(약대 72) 왕규현(의대 56) 김택수(의대 57) 배상규(약대 59) 최창식(의대 61) New England 고일식(보건 69) 김문소(수의 61) 김선혁(약대 59) 박종건(의대 56) 송두영(공대 75) 김성일(수의 62) 이희규(공대 69) NJ & NY 곽노섭(문리 49) 유영호(의대 52) 권영국(상과 60) 김경순(상대 59)	김광현(미대 57) 김규화(상대 63) 김명철(공대 60) 김문경(약대 61) 김봉현(사대 54) 김석식(의대 58) 김성수(상대 64) 김숙자(음대 61) 김영애(사대 56) 김영철(의대 55) 김완주(의대 54) 김용술(상과 56) 김용연(문리 63) 김윤수(상대 50) 김종진(의대 77) 김창수(약대 64) 김현중(공대 63) 김희자(미대 66) 문석면(의대 52) 조중수(공대 64) 차국만(상대 56) 최영태(문리 67) 최영혜(간호 54) 최종진(의대 53) 최형무(법대 69) 한태진(의대 58) 허병렬(사법 42) 허선행(의대 58) 허유선(가정 83) 홍선경(의대 58) Ohio 송기인(의대 60) 송병문(공대 62) 송세엽(문리 51) 송영순(사대 60) 심영석(공대 76) 안재현(상대 63) 양명자(사대 63) 염극용(의대 54) 유상영(상과 55) 유영호(의대 52) 유택상(문리 58) 윤봉균(사법 54)	윤순철(사대 44) 윤영섭(의대 57) 이강홍(상과 60) 이경림(상대 63) 이능석(의대 57) 이성구(약대 56) 이재원(법대 60) 이정우(공대 71) 이천희(간호 53) 이한수(의대 55) 이행순(미대 60) 장대욱(음대 57) 정창동(간호 45) 조아미(음대 61) 조중수(공대 64) 민준기(공대 59) 박경원(미대 66) 박수안(의대 59) 박순영(법대 56) 박은규(약대 72) 박진우(상대 77) 박현성(약대 60) 배병애(간호 47) 배상규(약대 59) 서병선(음대 65) 손경택(농대 57) 송기인(의대 60) 송병문(공대 62) 송세엽(문리 51) 송영순(사대 60) 심영석(공대 76) 안재현(상대 63) 양명자(사대 63) 염극용(의대 54) 유상영(상과 55) 유영호(의대 52) 유택상(문리 58) 윤봉균(사법 54)	이은설(문리 53) 최동근(문리 50) 한국남(공대 57) 한영준(사대 60) Pennsylvania 강영배(수의 59) 김국간(치대 64) 김진우(공대 62) 김준주(치대 95) 김영우(공대 55) 김정현(공대 68) 김경태(공대 61) 김태훈(공대 57) 박형준(공대 87) 서재진(공대 47) 손재욱(가정 77) 송영두(의대 56) 신상재(수의 59) 신상식(공대 56) 심희철(음대 90) 오진석(치대 56) 윤경숙(문리 59) 윤정나(음대 57) 이규호(공대 56) 이상봉(문리 65) 이성숙(가정 74) 이지영 (문리 67) 전무식(수의 61) 탁순덕(사대 57) Utah 김인기(문리 58) Washington 김동호(농대 58) 김성열(치대 61) 이동림(의대 52) 이희백(의대 55) 홍영욱(음대 54)	안세현(의대 62) Rocky Mt. 송유준(의대 64) 이석호(공대 66) 표한승(치대 58) 유광현(문리 58) Tennessee 김경태(공대 75) 서갑식(공대 70) 우양구(법대 70) Texas 김기준(공대 61) 김태훈(공대 57) 박석규(간호 57) 박영규(사대 66) 박유희(약대 62) 신탈수(공대 59) 신철영(문리 64) 유 황(농대 56) 윤수경(공대 77) 이규진(약대 60) 이길영(문리 59) 이영재(상대 58) 조진태(문리 57) 진기주(상대 60) 최관일(공대 54) 최성호(문리 58) 탁순덕(사대 57) Utah 김인기(문리 58) Washington 김동호(농대 58) 김성열(치대 61) 이동림(의대 52) 이희백(의대 55) 홍영욱(음대 54)
--------------	---	--	--	---	---	---	--	--	--

제13대 회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동창회비(1년 75불)와 각종 후원금으로 동창회보가 발행되며 미주동창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동창회비와 각종 후원금은 모두 다음의 IRS Tax Exempt 번호로 감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Federal TIN: 13-3859506

*주소: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100 Blue Bell, PA 19422 Tel: 484-344-5500 Ext.302 Fax: 484-342-0222



'Green Hills Memorial Park Rancho Palos Verdes(Garden of Reflection)에 있는 가장 좋은 Family Place 대리석 있는 개인 소유 묘지 판매'

1)Family Estate 925 Space- A, B (side by side 2자리) 5만불
2)Family Estate 926 Space. 932. 933. 934 (8자리 더 있음)
현 시가 7만불 이상을 5만불에 팝니다.

*Address: 27501 South Western Avenue, Rancho Palos Verdes, CA 90275 (참소 문의: 310-521-4333)
*연락처: (818) 395-1967
*E-mail: opk377@yahoo.com

회비는 75불... 후원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엔지니어링 컨설팅/ 건축	운송 / 유통 / 원자재	리테일러 / 보석
공인회계사	Lee & Ro, Inc. 노명호 (공대 61) Tel.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Tel. (562) 692-0600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Tel. (213) 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 (상대 56) Tel.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우주개발 / 기술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신대식 공인회계사 신대식 (상대 60) Tel.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taycoeng.com www.taycoeng.com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Ocean, Arctic, Energy www.isope.org, jschung@isope.org	리테일러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의료 / 약국	동물병원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 (상대 81) Tel. (714) 530-3630 12912B 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북가주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정수만 안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rs1.com
Jun Chang CPA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481-0100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 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변호사	GA 조지아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배운범 치과 배운범 (치대 69) Tel. (213) 385-1233 3540 Wilshire Bl. LA, CA 90010 michaelyoonbae@gmail.com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OR 오레곤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광고문의를 전화 (484) 344-5500

NY / NJ (뉴욕 / 뉴저지)	Young Tai Choi E.A.	MD·VA-워싱턴 DC	Fairway Asset Corporation
공인회계사	최영태 (문리 67) Tel.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남옥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PA (필라델피아)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Drivetech, Inc 임달용 (공대 69) Tel. (703) 327-2797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리테일러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공대 93) Tel. (347) 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D Great Neck, NY 11021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ce, #350, Annandale, VA 22003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록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 편집후기 ■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메일 주소를
<general@snuaa.org>로
보내주세요.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에
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태어나는 것
이고 또다른 하나는 죽는 것이다. 하
지만 그 둘 사이에 놓여지게 되는 모
든 과정 만큼은 서로 다르다. 그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표현한다. 마찬가
지로...동창회보라는 것이 있고 동창회
보가 배달되는 것 만큼은 모든 동창에
게 똑같다. 그러나 동창회보에 참여하
는 방식과 읽는 방식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동창회원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 보시라! “나에게 있어서 동창회

보란 무엇이며, 다른 동창들과는 어떻
게 다른가?” 라고. <이상봉>

아주 오래 전 젊은 엄마가 첫 아이를
해산하러 진통으로 왔다. 진통은 오래
계속 되었으나 위치가 잘못된 아기는
나오기를 거부하였다. 위험을 느낀 산
파는 집게같은 기계를 넣어서 아기를
강제로 끌어내었다. 아기는 곧 죽은 것
으로 여겨졌지만, 한참 후에 첫 울음으
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아기
의 뺨에 생긴 깊은 상처는 세월이 가면
서 흐려졌지만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있었다.

하마터면 내 동생이 장녀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을 사건이었다. 마지막을
화려하고 가슴 저리도록 아름답게 장
식하고 있는 나무들 밑에 서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인생의 환
혼기를 돌아본다.

언제 감사하지 않을 시간들이 있으련

만 우리들이 정한 감사의 달을 맞이하
여 사람으로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께
감사하고 서울대를 다닐 수 있었던 행
운에 감사하고 또 지금은 한 가족같이
함께 고민하며 수고하는 우리 동창회
보 편집위원회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지재원>

지난 목요일 오후 늦게 2주간의 한
국방문에서 돌아와 Kakao Message를
보니 금요일(10/30)에 편집회의가 소
집된다고 해서 시차적응으로 몸이 피
곤한 가운데 신문 제작에 별로 Conri-
bution하는 바가 없어서 늘 마음이 무
거웠던 것을 회의 참석해서 의견교환
하는 것도 봉사의 한 방법이라고 위로
(?)하면서 참석했다.

회장님, 주필님, 편집장님 그리고 모
든 편집위원님들의 열정과 희생적 노
력에 늘 감동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Creative한 회보가 발행되리라
확신합니다. <정덕준>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 속에 처절하
게 불타던 가을나무들이 하나, 둘씩 이
파리를 떨구고 있습니다. 동창회보를
만드는 일도 저 뿐만 아니라 편집위원
님들, 논설위원님들, 모두 삶의 열정을
불태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서 훗날 돌이켜볼 때 필라델피아에
서의 지금 2년이 참 아름다웠던 시간
이었구나, 라는 기억으로 남게 되길 소
원해 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동
문 여러분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창회
보를 통해 회·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더불어 힘을
얻게 되는 삶들이 되길 바랍니다.

12월은 ‘나눔’, 1월은 ‘희망’, 2월은 ‘
인내’라는 주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동
문들의 삶 속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에... <편집장>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성명 :	단과대학 및 대학원 :	입학연도 :
주소 :	전 주소 :	
업소 이름 :	업소 주소 :	
전화 :	Email :	
동창회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록 광고비
☐ 연 \$200 ☐ 연 \$1,000 ☐ 연 \$500 ☐ 기타 \$	☐ \$75 (1년: 2015.7~2016.6)	☐ \$240 (2015.7~2016.6)
보낼 곳 :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Tel: 484-344-5500 Ext 304 Fax: 484-342-0222	E-mail: general@snuaa.org
지불 방법 : Card 또는 Check / Pay to the order of ‘SNUAA-USA’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기타()	전화 484-344-5500 Ext 302() or	Check No.:
Card No.:	Security Code :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	Date :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서울대 미주 동창회 조직 임원단

제13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오인석(법) · 이용락(공)
오흥조(치) · 이영목(공) · 이진구(농) · 송순영(문) · 김은종(상) · 오인환(문)

명예회장 : 오인환(문)

제13대 회장: 손재옥(가정)

차기 회장	윤상래(수의)
후원회 부회장	제영혜(가정)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하용출(문)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황선희(공)
고문	전방남(상) · 고병은(문)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차임경(가정)	사업부장	한중희(공)
총무부장	심희진(음)	섭외부장	박형준(공)
조직부장	백옥자(음)	특별사업부장	허유선(가정)
재무부장	이성숙(가정)	IT개발위원장	김원영(미)
사무장	이제니		

회보 임원

발행인		손재욱(가정)
주필		정홍택(상)
편집위원장		김정현(공)
편집/디자인		송보현
편집위원		김상돈(공) · 김진우(공) · 심희진(음) · 이상봉(문) 이성숙(가정) · 정덕준(상) · 정태광(공) · 이재원(사) 차임경(가정) · 황선희(공) · 허유선(가정) · 현명역(공) 홍선례(음) · 각 지역 동창회 편집간사
Webmaster		김원영(미)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고병철(법) · 김일훈(의) · 김용현(경) · 김창수(약)
민경훈(법) · 유재풍(법) · 윤상래(수의) · 이석구(문)
이원영(정) · 이채진(문) · 장석범(법) · 정홍택(상)
조동준(의) · 차민영(의) · 최용완(공) · 하용출(사)

회칙 위원회

위원장 | 한재은(의)
위원 | 김병연(공) · 김용현(상) · 서종민(공)
이강원(공) · 이민언(법) · 함은선(음)

인선위원회

손재옥(헌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오인환(위원장, 직전회장)
+ 4명 미정

모교 발전 기금 위원회

손재옥(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오인환(위원장, 직전회장)
+ 4명 미정

감사

주기목(수의) · 박영철(농)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연락처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회장	박혜옥(간호 69)	818.606.6503	jennypaek2@gmail.com	Feb-Feb
	차기회장	김병연(공대 68)	213.923.0907	byeongk@gmail.com	
북가주	회장	임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종수(공대 74)	484.480.0506	jskim0524@comcast.net	
뉴욕	회장	민준기(공대 59)	845.270.0451	joonmin1@yahoo.com	Jan-Dec
	차기회장	김도명(농대 70)	908.756.2042	dmkim516@gmail.com	
뉴잉글랜드	회장	이의인(공대 68)	781.862.5270	euinlee@verizon.net	Jul-Jun
달라스	회장	오기영(공대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룩키마운틴스	회장	송요준(의대 64)	970.396.0616	yojunsong@me.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haeseokch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회장	김주성(농대 83)	858.213.5666	brianjoosungkim@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시카고	회장	김용우(공대 69)	630.235.9387	kimyongjo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정승규(공대 60)	773.562.0677	s_jung@att.net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 56)	520.271.2601	younhwan_oh@yahoo.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회장	윤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백대현(상대 77)	503.587.0447	daehyunbaek@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이성우(상대 72)	614.294.2453	rimshake@ameritech.net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DC	회장	장경테(사대 75)	703.901.3770	jangkent@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이원섭(농대 77)	206.954.1871	wonlee@qbmintl.com	Jan-Dec
	차기회장	임현민(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회장	김한섭(의대 53)		hanseup@ece.utah.edu	Jul-Jun
	차기회장				
조지아	회장	강창석(의대 73)	314.363.8396	kangs5@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중부텍사스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필라델피아	회장	전방남(상대 73)	610.220.3461	jeonbana@gmail.com	Jul-Jun
	부회장	유영진(경영 85)	215.307.0001	xyy23yoo@gmail.com	
플로리다	회장	윤기항(법대 65)	561.962.5185	yuhn@fau.edu	Jul-Jun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회장	이상구(자연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차기회장				
테네시	회장	박재현(자연 81)	865.696.9066	jae.park99@gmail.com	Jan-Dec
	부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865.671.3602	sbaek2@utk.edu	
하와이	회장	성낙길(해양 77)	217.508.8711	nsung@hawaii.edu	Jul-Jun
	차기회장	전수진(식공 89)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wanjunhada@gmail.com	Jul-Jun
	차기회장				
휴스턴	회장	최인섭(공대 75)	713.952.8989	inchoi@msn.com	Jan-Dec
	부회장	구자동(상대 70)	713.206.1942	kykey2003@yahoo.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종기(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HAPPY SEEDS
INCORPORATED

JW 토닉 샴푸

정경테
(사대75)
877-HAPPY-81

novitausa
Something better for you



JW TONIC
For your healthy Skin & Hair

샴푸 \$32 / 1병 500ml 토닉 \$50 / 1병 150ml



세정력의 차이!
욕실품격의 완성
노비타 비데

비데 BG 90.93 모델 \$499 (운반비 포함)



서울대 동문 10% 할인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예뻐 때 가고 싶은 사람
운명보다 노력을 믿는 사람
만남에 더 신중한 사람
아직 내 사람을 못 만난 사람

결혼정보회사
커플 듀오
LA 213-383-2525
NY 212-947-2525

결혼해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ccm 업계최초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CCM 인증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를
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해 '착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



Penn Asian is my happiness.



펜 아시안이
제 행복입니다.

Penn Asian Senior Services *& Jubilee Adult Day Center*



Penn Asian Senior Services

- ◆ Home Healthcare service offered in 12 Asian & English languages
- ◆ Bilingual Home Health Aide Training
- ◆ Certified Nurse Aide Training
- ◆ Health Insurance Enrollment Assistance

Penn Asian Jubilee Center

- ◆ Open Mon-Fri 7AM-6PM
- ◆ Nutritious hot meals
- ◆ Therapeutic & fun activities
- ◆ Free transportation

6926 Old York Road, Philadelphia, PA 19126

Tel: (215) 572-1234

www.passi.us

[Facebook.com/pennasianseniorservices](https://www.facebook.com/pennasianseniorservices)

MAKE THE WORLD BEAUTIFUL.



SeAH

SeAH STEEL AMERICA, INC.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949-655-8000

이병준 (상대55)

